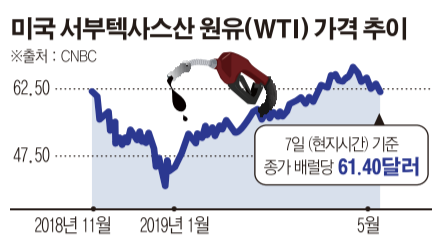


美·中 무역전쟁 ‘폭풍전야’...글로벌시장 ‘살얼음판’

트럼프 ‘추가 관세’ 위협 속 아시아·유럽 일제히 하락세 “10일까지 시장 불안 지속”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관련기사 6·14면

미국 뉴욕증시는 하루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2% 가까이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79%, S&P500지수는 1.65% 각각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1.96% 급락한 7963.76으로, 8000선이 무너졌다. 다우지수는 1월 3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S&P 500은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많은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의 불안을 촉발한 것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이었다.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 트럼프의 위협에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D.C.를 방문해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추가 낙폭을 제한했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날 뉴욕증시 마감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10일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하자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것이다.

이날 중국시장의 비중이 큰 기술업종에 매도세가 대거 유입됐다. 중국은 주요 IT 제품 생산기지인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등의 핵심 시장인 만큼 미국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애플 주가가 2.7%, 엔비디아는 3.8% 각각 급락했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 600지수도 이날 1.4% 하락해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8일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에 휘말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98포인트(0.41%) 내린 2168.01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3월 29일 이후 약 40일 만의 최저치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1.5%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 중국과 홍콩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의 고비인 10일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우리나라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 및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한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며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이번 주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얼굴 분석하는 AI 솔루션 삼성SDS가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리얼(REAL) 2019’에서 얼굴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주얼 인공지능 얼굴 인식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삼성SDS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과 성공사례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12면 신태현 기자 holjjak@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코리아 세무조사

국세청, 2015년 640억 추정...3년 만에 다시 검증대 올라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벤츠코리아 본사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 이후 만 3년 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벤츠코리아에 약 64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일부 과세 항목에 불복,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

다. 동종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4~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벤츠코리아 세무조사는 불과 3년 만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27억 원을 부과받은 상황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 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보다 유심히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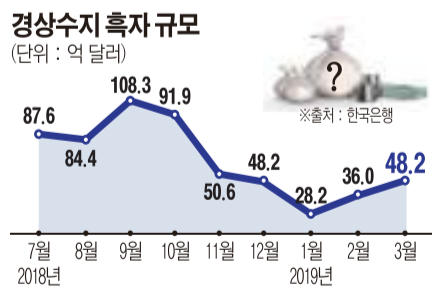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547억4847만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도 5% 증가한 4조4742억 원을 기록했다.

대주주는 독일 다임러그룹(지분 51%)과 스타오토홀딩스(49%)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경상흑자 6년9개월 만에 최저...4월 적자?

1분기 112억5000만 달러 “반도체 부진 여행수지 개선”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 부진으로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83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경상수지는 112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2012년 2분기 109억4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3월 경상수지는 48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폭이 2억8000만 달러(5.6%) 줄어든 것이다. 2월에도 7.8% 감소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94억1000만 달러에서 84억7000만 달러로 10% 축소됐다. 작년 11월(-33%) 이래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품수출은 47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528억9000만 달러)보다 9.4% 줄었다. 역시 5개월 연속 준 것이다. 상품수입은 3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34억8000만 달러) 대비 9.2% 감소했다. 이 또한 석 달째 축소된 것이다.

양호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상품수지가 세계교역량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수출 감소로 줄었다. 수입도 기계류와 원유 이외 석탄 및 석유, 가스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여행수지는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4월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소폭 적자 또는 소폭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재계 ‘AI면접’ 확산

SKB·LG U+·포스코인터 도입...LS도 검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면접’을 새롭게 도입했다. AI 면접이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대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는 올 상반기 채용부터 AI 면접 전형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

AI 면접은 기업이 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AI가 던진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AI는 자기소개 등 간단한 질문부터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묻는 등 심층·구조화된 질문을

한다. AI는 질문에 답하는 응시자의 표정, 음성, 제스처 등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성격과 장·단점, 전략 능력, 주요 특징 등을 추출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지 등을 평가한다.

포스코인터는 이를 통해 지원자의 성향과 역량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AI 면접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잣대로 활용하기보다 지원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쓸 방침이다.

포스코인터가 장치산업인 철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험적 시도를 하기 좋은 종합상사인 만큼 향후 AI면접이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포스코인터를 시작으로 AI 면접이 재계 전반에 확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일부 대기업은 AI 면접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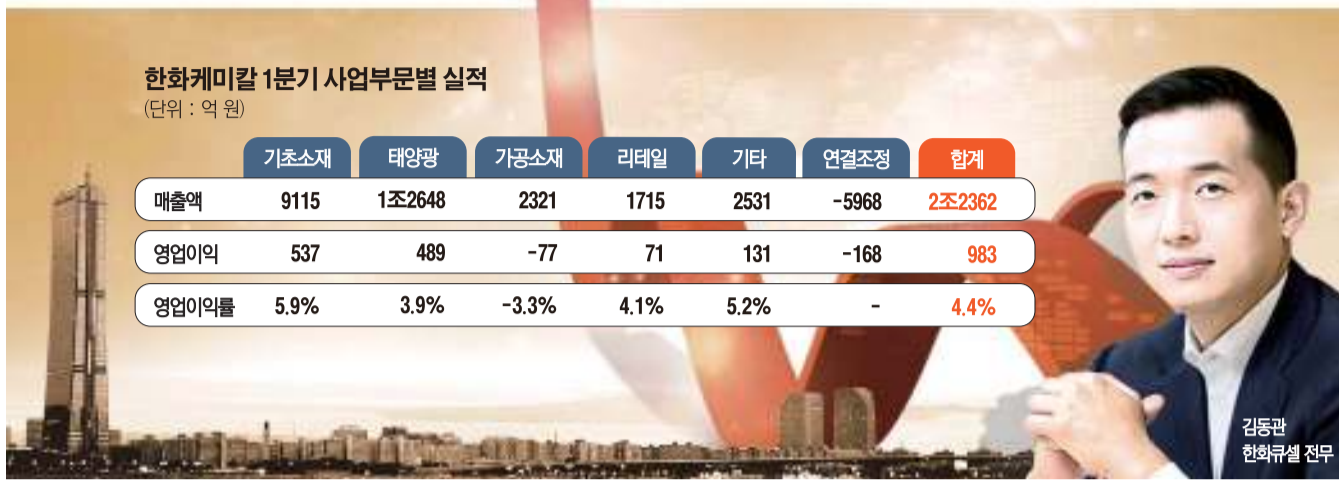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신입 채용 면접전형에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영업전문인재(FM) 채용에 AI면접을 적용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AI 면접, 대면 면접의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LS그룹도 올해 중 AI 면접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I 면접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AI 면접에서의 좋은 성적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큐셀 전무>

빛나는 김동관의 태양광... '한화케미칼' 흑자 전환 견인

美·유럽 등 모노제품 판매 확대
전분기보다 매출 8% 늘어 1.3兆
판매가 상승 등 2분기도 청신호
김 전무, 고효율 제품 전략 적중
글로벌사업 경영능력 입증 발판



태양광 부문은 매출액 1조264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적자(-411억 원)에서 흑자 전환해 489억 원으로 늘었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고품질 모노(단결정)제품 수요의 증가와 원료인 웨이퍼 투입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전 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소멸된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시장에서 모노제품의 판매가 확대됐으며 웨이퍼 투입가격 또한 하락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전 분기 발생했던 470억 원의 일회성 비용도 소멸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부문은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웨이퍼 투입가가 상승할 전망이지만, 미국 태양광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유

럽, 한국, 호주 등 주요 시장의 견조한 출하량과 평균판매단가(ASP)상승으로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사업이 성과가 나오면서 김 전무의 경영능력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무는 2010년 ㈜한화로 입사한 뒤 2015년 12월 한화큐셀 상무로 승진, 태양광 사업을 이끌었다. 김 전무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분

주하게 뛰었지만 글로벌 태양광 산업 자체가 불황을 겪으며 경영능력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전무가 글로벌 시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효율·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한화의 태양광 사업은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업이익은 2500억 원으로 2017년 143억 원, 2018년 107억 원 적자와 비교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도 태양광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가는 2020년 이후부터 한화가 시장을 본격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 역시 2022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9조 원을 투자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은 화학 부문 부진을 태양광 사업부 호조로 상쇄했다"면서 "태양광 부문은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생명 사장>

'취임 1개월' 여승주, 디지털 보험 승부수 던진다

한화생명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내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여승주(사진) 사장은 취임 후 '디지털 금융'을 줄곧 강조해왔다. 한화생명이 AWS를 도입해 한발 앞서 상용화하면 디지털 보험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AWS 도입을 위해 실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한화생명 관계자는 AWS 도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한 정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인신용정

아마존웹서비스 도입 검토
클라우드 통한 IT 인프라 구축
회계관리·비용 절감 등 시너지



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국내 전산센터와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클라우드 제공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아마존은 국내에 전산센터를 두고 있어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다.

한화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AWS를 도입하면 앞으로 보험시장에서 디지털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보안원이 약 100여 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

인 52%가 '1년 내 금융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3년 내 클라우드 도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용량과 고성능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이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많은 양의 개인통계와 각종 통계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이 필수다. 실제로 보험업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보험계리분석과 회계관리 등 복잡한 프로그램

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권 클라우드 확대 기대 효과로 보험업계 최대 이슈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높은 보안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관련 지침을 발표해 안전장치 마련을 명시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안정성 평가 지원 수요 조사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데이터 접근권 및 현장감사권 부여' '백업체계 마련' 등이 중 안전장치 마련을 단서로 달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오지 없는 5G”... 이통 3사, 전국망 구축에 8兆 투입

세계 최초 넘어 '품질' 경쟁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설비투자(CAPEX) 비용으로 8조 원가량을 쓴다. 지난달 상용화했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5G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년 보다 최대 40%가량 설비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통 3사의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30~40%가량 늘어난 8조 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5G 가입자가 26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통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5G 기지국은 5만 4000여 개다. 87만 개에 달하는 LTE 기지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이마저도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5G가 제대로 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 3사는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 5G 기지국을 완벽히 깔고 전국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대규모 늘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KT다. KT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3조3000억 원까지 늘린다. 지난해 2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43% 증가한 수치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 3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통해 “5G 상용화로 기지국 투자집중, 재난망 등 설비투자에 올해 3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1분

‘1위 굳히기’ KT, 상용화에 3.3兆 ‘집토끼 사수’ SKT, 투자액 40%↑ ‘추격자’ LG U+, 1.8兆 투입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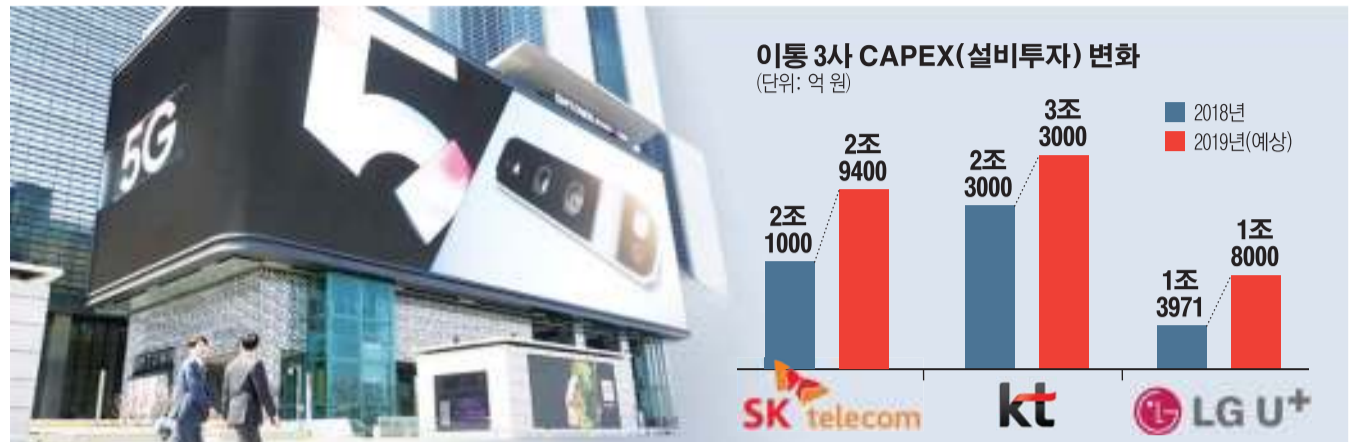
기까지 설비투자는 올해 16.7% 수준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5G 가입자에서 이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달 5일 개통 시작 6시간 30분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지난달 30일 가입자 10만 명 고지를 가장 먼저 넘었다.

SK텔레콤도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40%까지 늘린다. 5G 초반 가입자 점유율에서 KT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가입자 유치가 경쟁사에 뒤처질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고수익 가입자를 대거 잃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이동통신 ARPU는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3만645원에 그쳤다. SK텔레콤 입장에선 투자비를 늘려 가입자를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Corporate) 센터장은 7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통해 “2018년 별도기준 설비투자를 2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올해는 5G 상용화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30~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



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의 말대로 설비투자가 30~40% 증가하면 SK텔레콤은 올해 설비투자가 2조7300억 원에서 2조9400억 원까지 증가한다.

SK텔레콤은 5G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기존 가입자 구조처럼 5G 가입자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CFO는 “2020년까지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라며 “LTE 때에도 개통 후 1년간 이 정도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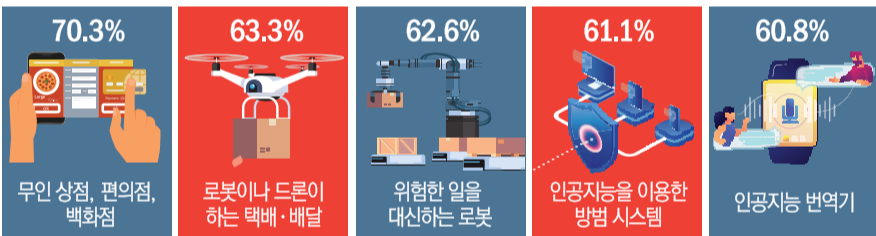
입자를 확보했다”며 “현재는 5G단말기도 한 개이고 5G 서비스도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현재 가입자 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선(MNO) 매출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등이 겹쳐 수익성이 줄고 있으나 감소폭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가입자들의 미디어 소비 확대로 인한 데이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무선수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LG 유플러스도 설비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는 1조3971억 원이었다. 30%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설비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취후 LG유플러스 CFO(부사장)는 2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에서 “초기 5G 커버리지에 대한 고객 불편을 반영해 안정적인 5G망 커버리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는 5G네트워크 투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지능정보 서비스 상용화 시 이용 의향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5년내 상용화 AI기술 ‘원격진료’

무인상점·드론 택배 등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꼽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5년 내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로 ‘원격진료’를 꼽았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이용해보고 싶어하는 서비스로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과 ‘무인상점·편의점·백화점’ 등이 선정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1회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내 일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로 원격진료가 63.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연간 1회씩 시행된다.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형태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격진료 다음으로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55.8%)이 꼽혔다. 교육로봇(40.8%)과 아기돌봄 로봇(41.6%) 등 아직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상용화됐을 때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는 무인 상점과 편의점, 백화점(70.3%)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로봇이나 드론이 하는 배달·택배(63.3%) △AI 번역기(60.8%) △원격 진료(56.7%) △자율주행(56.7%) 등이 인기가 높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에 대한 염려가 적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디지털기기 이용 현황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은 100%였다. 주 이용 목적은 ‘타인과의 소통’을 꼽았다. 정보검색(29.7%)과 여가활동(18%)은 후순위였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는 기기는 데스크톱PC(53.6%), 노트북PC(29.2%), 태블릿PC(7.9%) 등으로 조사됐다.

AI 스피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컸다. 조사 결과 AI스피커 보급률은 7.4%에 불과했지만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AI스피커의 답변이 유용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AI 스피커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를 편향시킬 가능성이 걱정되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약 절반인 46.1%에 달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개선됐다고 느꼈지만 웹에 본인의 흔적이 남는 것은 경계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이 58%였다. 보통(33.8%)이나 악화됐다(8.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기기 이용자의 65.2%는 이미 삭제된 글이나 사진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상 존재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Stage 6 大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신한내게맞는 착한 보장보험

(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대비해

언제나 당신 곁에는 '신한생명'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Stage 6 大 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50%형 및 7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신한내게맞는 착한 보장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에는 일반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일반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정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공통 안내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539호(2018.4.10),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

금배추 없앤다 '농산물 수급예측 부서'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을 신설한다.

8일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예측을 담당하는 벤처형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형 조직은 부처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프로젝트 조직이다.

농식품부의 벤처형 조직은 예측 전문성 제고와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

농식품부, 재배 면적·수확량 예측 벤처형 조직 2년간 운영 과잉·과소 생산 예방... 견고추·마늘 등 가격 안정화 기대

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배추와 무, 견고추, 마늘, 양파 등 수급 변동성이 큰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예측 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수급 예측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때

문이다. 배추만 해도 지난해 여름배추는 폭염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1.5배 넘게 올랐지만, 겨울배추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년의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때마다 수급 안정책이 나왔지만 사후 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가격 불안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나 농가 모두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측은 재배 면적 예측과 수확량 예측 정확성을 높이면 농산물 과잉·과소 생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소생산이 예상되면 농가에 추가 재배를 장려하고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다른 작물 재배 등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협과 손잡고 재배 면적 조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수매 가격을 높게 쳐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수급 조절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수급 예측 조직 신설 문제는 이달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수급 예측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대기업 수출 67% 차지... 반도체 편중 탓 쏠림 심화

작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상위 10대 기업 점유율 38%

중견기업 16.1%, 중소기업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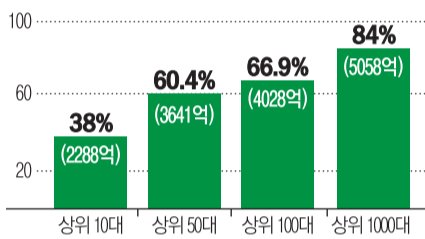
총수출액 6049억 달러 5.4% '쑥'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6049억 달러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무역통계간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계된 기업의 수출액은 6024억 달러로 5.2% 늘었다. 다만 수출 증가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탓에 대기업 쏠림은 전년보다 심화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속보)'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기업과 연계기업의 수출액은 각각 5.4%, 5.2% 증가했다. 연계율은 99.6%를 보였다. 수입액은 전체 기업이 5352억 달러로 11.9%, 연계기업은 5279억 달러로 11.6% 늘었다.

상위 기업별 수출 비중

(단위: 달러, 2018년 기준) * 출처: 통계청, 관세청



기업 규모별(이하 연계기업)로는 수출입 모두 대기업이 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출액은 대기업이 6.2% 증가한 4038억 달러로 전체의 67.0%를 점유했다. 대기업 점유율은 전년(66.4%)보다 0.6%포인트(P) 확대됐다. 중견기업은 970억 달러로 6.8% 늘며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0.2% 느는 데 그쳤다. 점유율은 17.7%에서 16.9%로 하락했다.

수입액은 대기업이 15.7% 증가한 3284억 달러(점유율 62.2%), 중견기업은

9.3% 증가한 763억 달러(14.5%), 중소기업은 3.1% 증가한 1232억 달러(23.3%)를 기록했다.

수출입에서 대기업 쏠림은 지난해 수출 증가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됐던 탓이다. 제조업 수출액이 5068억 달러로 전체의 84.1%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068억 달러로 전년보다 13.5% 늘며 전체 수출액의 34.3%를 점유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전년(36.2%)과 비교하면 1.8%p 높아졌다.

심상욱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주요 호황업종을 본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석유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 많이 증가했다"며 "그쪽이 일단은 대기업 쪽, 대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 총리, 에라도르 현대차 공장 방문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7일 에라도르 아

이에서 현대기아차 조립공장에서 열린 현대

차 '그랜드 아이텐(i10)' 조립생산 기념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키토(에라도르)/연합뉴스

조동철 금통위원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 우려할 시점"

기준금리 인하 입장 피력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철(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적 물가, 즉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낮은 물가를 한은 물가목표치(2%)로 끌어올리기 위한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한다.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물가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의 저금리 장기화도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11년"이라며 "바로 그 다음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 모르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인플레이션보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 오고 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0.1%포인트 미만(인플레이션 2.96%, 목표 3%)이었던 인플레이션과 한은 물가 목표수준 간 격차는 2012년 이후 7년간 연평균 1%포인트에 달했다. 그는 "2000년 이후 10년 물 국제금리가 4~5%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다"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0%와 장기금리 수준 사이에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금리 하락은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홍남기 "경기 상황 엄중... 추경안 등 빨리 통과돼야"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고며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 활성화와 분기기를 확산



하겠다고 했다.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조기에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임금 결정

최저임금법 국회 못 넘어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침 "시장 수용성 고려해 검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 열고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뤘으나 4월 임시국회가 7일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조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운영위 위원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

다"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 개정이 안 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최저임금위 운영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이에 가능한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여는 등의 견수령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한 공익위원 8명의 거취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혁신 택한 민주당... 이인영 “통합 이뤄 총선 승리”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결선투표서 76표로 김태년 제쳐 운동권 출신 '86그룹' 대표주자 패스트트랙 갈등 해소 첫 과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 4기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에 그친 김태년 의원을 제치고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가 이뤄졌다. 이 의원이 54표, 김 의원이 37표를 얻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이 원내대표가 선거전 내내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혁신과 쇄신'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결국 혁신과 쇄신을 선택한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지도부에 들어가는 만큼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당장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당·청의 국정 동반자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어 투쟁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등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정말 말을 잘 듣는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이 세다는 평을 깔끔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결을 통해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이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다. 그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활약하며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부의장 우상호 의원과 함께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재야 생활을 오래 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범래 후보에게 패해 다른 운동권 동료들과 함께 고배를 마셨다. 19대 총선에서 재도전, 국회에 재입성한 뒤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G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최측근이다. 두 차례 최고위원을 지냈다. 크고 작은 선거를 이끌며 선거판에서의 잔뼈도 굵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이듬해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각각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그에게 풀어야 할 숙제다. 조현정 기자 jhj@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뉴스시스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모든 책임지겠다”

바미당, 15일 새 원내대표 선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 등에 대해 모든 책임지겠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개혁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진심 어린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였다. 하지만 취임 318일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리는) 다음 주 수요일(15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 7명 등 의원 15명은 7일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중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24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韓·美 정상, 대북 식량지원 공감... 대화 물꼬 틀까

워킹그룹 회의서 논의할 듯

한미 정상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공감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어떤 종류의 품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당장 외부로부터 136만 톤(t)을 들여와야 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 발표문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나눈다. 식량 지원 규모에 대해 한미 간 입장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대북 식량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해 할지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나,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국가고객만족도 1위
2018 NCSI 증권 금융상품매매부문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2018 KCSI 증권부문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하지만, 만족에 끝이 어딴습니까?

NH투자증권이 고객만족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5002호(2018-12-19~2019-12-17)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CREATE 50

앞을까 덮을까 ... 美·中 무역전쟁, 이들이 고비

(9~10일)

류허 中 부총리, 관세폭탄 예고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텐안먼 30주기’ 앞두고 여론 주시...對美 보복관세 배수진

을 명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양보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중국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서면 중국은 1분 후 즉각 보복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9-10일 이들이 미·중 무역 전쟁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셈이다. 협상 타결에 실패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 기업과 시장, 소비자,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미국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류허 부총리가 관세 인상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히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도 강경한 자세로 보복에 나설지가 초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중국은 이날 부진한 무역지표를 발표했다. 중국의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해 시장 전망인 3.0% 증가를 벗어났다. 반면 수입은 2.1% 감소했을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4.0% 늘어났다. 이에 무역수지 흑자는 138억4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인 350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이날 미국 경제단체 간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강경 자세로 돌변한 것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는 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으며 이를 미·중 무역협정문에 명문화하려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에 명기하지 않는 대신 국내 법 개정으로 해당 사안을 후퇴시키려 했다.

이밖에도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법제화와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 의약품 데이터 보호 등 세부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중국 입장에서 보조금은 경제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이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이 시장 개방과 기술 이전에서도 중국의 전면적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속내를 보이자 더욱 난감해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4일 텐안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여론 동향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무역협상 타결로 대미 관계 악화 비판을 봉쇄하려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상 언급으로 무산됐다. 과연 미국과의 9-10일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벼랑 끝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결렬이나 타결이나. 1년여를 끌어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중대 고비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측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무역 전쟁의 봉합 여부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류허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라이트하이저 등

미국 무역 협상단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1시 1분)에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초 미국은 관세 인상 여부를 7일 공시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강도 압박이 중국에 먹힐지 여부를 판별하고자 공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가 정식으로 적용된다면 사전 공고가 있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한 정부 문서에 ‘관세의 균봉으로 위협하면 협상은 없다’는 내용



이란 ‘핵합의’ 파기예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통해 핵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서방과 2015년 타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의무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현지 주재 핵 합의 당사국(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전달했다. 이란의 이 같은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테헤란/EPA연합뉴스

싸우든 말든... 中 기업은 ‘나스닥 행렬’

윈지·소영 등 올 40여개 기업 IPO

미중 무역전쟁과는 별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상장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CNBC방송은 올해 4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밥 맥코이 나스닥 수석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가장 강력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CNBC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두 개의 중국 기업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중국 최대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윈지(云集)’와 성형외과 전문의와 유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소영’이 그 주인공이다. 윈지와 소영은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통해 각각 1억2100만 달러(약 1415억 원)와 1억7940만 달러(약 2097억 원)를 조달했다.

올해 나스닥에서 IPO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나스닥에 이름을 올린 기업과 비교하면 비교적 덜 유명하다. 다만 그 수가 올해는 더 많을 전망이다.

맥코이 부사장은 “지난해는 매우 자본집약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그만큼 많은 돈이 모이지 않겠지만, 미국 증권시장을 찾는 중국 기업 수는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중국판 넷플릭스’로 알려진 아이치이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회수 수가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두오두오’, ‘중국판 테슬라’ NIO, 중국 1위 음악 스트리밍 업체 ‘텐센트’ 등이 나스닥에 상장했다. 중국의 유명한 하이테크 기업 중 아직 상장하지 않은 곳으로는 중국의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과 알리바바그룹의 금융회사 앤트파이낸셜, 신형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 ‘바이트댄스’ 등이 있다.

나스닥은 현재 미국 증시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코이 부사장은 CNBC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며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펀더멘털이 튼튼해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구글 CEO〉

“모두를 위한 저가폰”... 피차이의 도전

399달러 ‘Pixel 3a’ 출시 스마트폰 고가경쟁에 반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핵심 철학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글의 핵심 철학은 ‘모두를 위해(for everyone)’이다. 언뜻 보면 자본주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구글과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 둘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구글은 ‘모두를 위해’라는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대표 기능인 검색엔진만 하더라도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든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 사는 학생이든 쓰는 데 차이가 없다. 이것이 인도 출신의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이다.

피차이 CEO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 철학을 스마트폰에서 구

구글이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시어터에서 ‘2019 구글 I/O(연례 개발자회의)’를 열고 중저가 스마트폰 ‘픽셀 3a’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시스

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구글과 경쟁이 안 된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모두를 위한’ 것일 수 없다는 게 피차이 CEO의 생각이다.

시장도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마리오 퀘이로스 구글 제품관리담당 부사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사람들이 한 번 구입한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차이 구글 CEO는 “프라이버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게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얘기도. 프라이버시는 사치품이 아니라는 피차이 CEO의 정신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비싼 스마트폰 일색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도요타, 日 기업 최초 ‘연매출 30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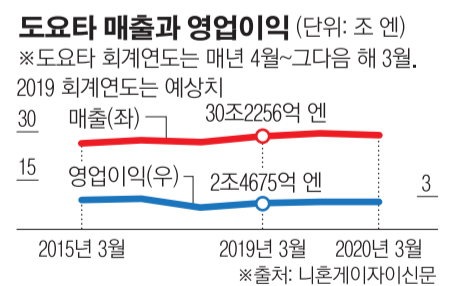
애플·유럽 호조가 美·日 부진 상쇄...글로벌 신차판매, 사상 최대

도요타자동차가 일본 기업 최초로 연매출 30조 엔(약 319조 원)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올해 3월 마감한 2018회계연도에 매출이 전년보다 2.9% 늘어난 30조2256억 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2조4675억 엔이었다. 이로써 도요타는 2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일본 상장사 중 연매출이 30조 엔을 넘는 건 도요타가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량이 줄었지만 아시아에서 9%, 유럽에서 2%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신차 판매 대수(다이하츠공업, 히노자동차 포함한 그룹 전체)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약 106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시장에서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 등의 판매가 탄탄했던 것이 기록 경신을 도왔다는 평가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30조 엔을 넘



어섰다”며 “고객과 판매대리점, 구입처, 종업원 등 모든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다. 도요타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도요타는 내년 3월 마감하는 2019 회계연도 실적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 세계 판매 대수는 그룹 전체에서 전년과 같은 1074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계연도 매출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30조 엔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3.3% 늘어난 2조5500억 엔으로 제시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돈 수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그냥 와라. 집이 온통 꽃밭이다!

- 빈손으로 오란 얘기는 아니다 -



꽃보다 적금

W효도적금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효(孝) 테마 상품

EVENT

2019.5.2(목) ~ 5.31(금)

기간 내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5명

정관장
홍삼정예브리타임

20명

파리바게트
5만원 기프티콘

100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콘

기본혜택 최고 금리 연 2.25% / 오래 효도하시라고 10년간 만기자동갱신
효도 자금 필요 시 중도 인출 가능 (1년 2회) / 효도 목적에 따라 계좌명을 내 맘대로!

부가혜택 부모님 기념일 알람 서비스 / 상조서비스 최대 48만원 할인
치과, 안과 등 의료비 할인 정보 제공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2259호(2019.05.07) 게시기한: 2020.05.06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교육청 금고 틈새 찾은 시중銀... '농협천하' 막 내리나

권익위, 독점 방지 차원 예규 변경
광주·전남교육청 첫 적용 대상
9월까지 신규 금고 선정 추진
업계 "경쟁입찰 간다면 해볼 만"

70조 원 규모의 전국 교육청 금고를 놓고, NH농협은행의 독식 체제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광주와 전남교육청 금고 계약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시중은행 간의 경쟁이 이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농협은행과 계약이 종료되는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9월 안으로 신규 금고 선정에 나선다. 선정된 은행은 4년간 해당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청	금고	출연금(4년 총액)	교육청	금고	출연금(4년 총액)
강원		2억5000만	세종		8억
경기		8억	울산		4억7000만
경남		5억	인천		6억4000만
경북	NH농협은행	4억	전남	NH농협은행	8억
광주		3억	전북		3억5000만
대구		4억	제주		4억
대전		7억	충남		8억2000만
부산	부산은행	11억	충북		6억

교육청 금고는 은행 기관금융 내에선 시·도 금고 다음으로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 전국의 교육청 금고로 들어오는 예산은 7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청 중 사자는 물론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까지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중은행이 교육청 금고 사업에 군침

을 흘리는 이유다. 그러나 교육청 금고 시장은 기존 농협은행이 구축한 벽이 만만찮다. 부산교육청(부산은행)을 제외하고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대전·대구·제주·강원 등 15개 교육청 금고는 모두 농협은행이 쥐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경

우 "부산은행이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교육청 금고에 있어 농협은행의 입지는 상당하다. 그러나 상급 교육청에선 경쟁이 가능한 구조지만 하급 교육청에선 이마저도 어려운 구조다. 예규에 따르면 시·군 내에 금융기관이 한 곳밖에 없을 경우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게 돼 있다. 지방 곳곳까지 지점이 없는 시중은행의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탓에 경쟁입찰 조건을 내걸어도 농협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대부분 금고 선정에 있어 농협은행이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배경이다.

다만 최근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교육청 금고는 기존 은행에 유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예규가 변경됐다. 기존 금융기관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업은 실적 대신 계획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또 협력 사업비

에 대해선 교육청이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예규가 변경된 후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이전까지 교육청 금고를 맡기지 못한 여타 시중은행으로서도 도전해볼 여지가 열린 셈이다.

최근 시·도 금고 경쟁에서도 기존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 농협은행도 장담하긴 어렵다. 신한은행은 100년 넘게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독점하던 우리은행으로부터 금고 운영권을 가져왔다. 지자체 금고는 과도한 협력 사업비가 도마에 오를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청 금고 쪽에선 농협은행의 입지가 단단해서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입찰에 응할 예정"이라며 "경쟁 입찰로 갈 수만 있다면 승산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산 기자 jinsan@

차기 여신협회장 선거 '눈치싸움' 후끈

자천타천 후보자만 20여명
14일 이사회서 선출 일정 조율
"당국 입김 줄며 도전자 늘어"

카드와 캐피탈 업계를 대변하는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자천타천 후보자만 수십 명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수장을 뽑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개최 일정을 잡는다. 15일부터는 열흘간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과 캐피탈사 7명에 감사 1명을 더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전에는 공모전 교통정리를 통해 2~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지만, 이번엔 하마평에 오른 인사만 20여 명에 달한다. 회추위는 이례적으로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관(官) 출신으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과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거명된다. 금융당국 출신으로는 5년 전 여신협회 부회장을 맡았던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이 캐피탈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상근 회장 기준으로 캐피탈 출신은 없었다. 카드사에서는 서준희 전 BC카드

사장을 비롯해 유구현 전 우리카드 사장, 정수진·정해봉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정부가 낙점한 인사와 업계서 미는 인사가 경합하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당국 입김이 줄어들면서 도전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수장의 높아진 위상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여신협회장 연봉은 4억 원에 달한다. 339개 공공기관장 중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지난해 말 기준 4억1700만원)과 비슷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후폭풍에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당국에 적극 전달해줄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7일 KB국민은행 미국 뉴욕지점에서 열린 'IB 유닛'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류영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유창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장, 정상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김성욱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 송태훈 KB국민은행 뉴욕 IB Unit장, 오보열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국민銀, 뉴욕 'IB 유닛' 개소 "글로벌 新수익원 확보 기대"

KB국민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에 '투자은행(IB) 유닛'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보열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성욱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 정상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유창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뉴욕 IB 유닛은 KB국민은행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IB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보열 부행장은 "글로벌 시장은 수수료 이익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IB 시장이 크게 활성화돼 있다"며 "더 많은 해외 네트워크 자산을 확보해 실적을 쌓게 되면 해외 IB 시장에서 KB국민은행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 외주관리

가격 내린 삼성·선물 공세 LG...5G폰 무한경쟁 서막

갤S10 5G 출고가 10만원 인하 출시 한 달 만에 판매 확대 총력

내일 출시 V50, 듀얼스크린 덩 연내 中 스마트폰 상륙도 예상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512GB 모델을 출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출가를 인하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LG전자는 연기됐던 V50 씽큐의 출시 일정을 확정하며 예약 판매에 돌입, 본격적인 5G폰 판매 경쟁에 뛰어 들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는 갤럭시S10 5G 512GB 모델의 출가를 155만6500원에서 145만7500원으로 9만9000원 내렸다.

이번 가격 인하는 512GB 모델에만 적용됐다. 256GB 모델의 출가는 기존과 동일한 139만7000원으로 유지된다. 출고가 인하여 256GB 모델과 512GB 모델의 가격차가 약 6만 원으로 좁혀지면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512GB 모델의 판

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10 5G 모델 출가를 인하는 것은 초기 5G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인하로 판매량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이통3사에서 판매된 '갤럭시S10 5G' 판매량은 26만 대를 돌파했다.

그동안 갤럭시S 시리즈는 후속 모델이 나온 뒤 출가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갤럭시S8시리즈는 2017년 4월 출시된 이후 1년가량이나 지나고 나서야 출고가 10만~13만 원 인하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갤럭시S9플러스 256GB 모델은 출시 두 달 만에 출가가 7만7000원 인하했다. 64GB 모델과 128GB 모델의 가격차는 2만2000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비자 접근 가격대가 다소 낮아지게 됐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며 시장이 정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출가 인하 전략이 재고 소진에서 신제품 초기 수요 진작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LG전자는 5G 서비스 이슈를 이유로 연

기했던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의 국내 출시를 10일로 확정했다. 8일과 9일에는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5G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LG전자는 초기 흥행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액정 무상 수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6월 말까지 V50 씽큐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증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5G 스마트폰 선택지는 삼성과 LG의 제품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반기부터 5G 스마트폰 종류가 늘어나겠지만, 그 전에 초기 시장 수요를 선점하려는 양사의 마케팅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5G 스마트폰이 대거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갤럭시노트10, LG전자 V시리즈 후속작이 출시될 전망이다. 오포, 화웨이, 샤오미 등은 스위스에서 5G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으며, 연내 한국시장 상륙도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제품 사양

갤럭시 S10 5G
가격 139만7000~145만7500원

- 디스플레이** 6.7형QHD+커브드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 크기, 무게** 77.1 x 162.6 x 7.94mm, 198g
- CPU** 8nm 64bit 옥타 코어 프로세서
- 배터리** 4500mAh
- 메모리** 8GB + 256GB/512GB

LG전자 5G 스마트폰 제품 사양

V50 씽큐 5G 가격 119만9000원

- 디스플레이** 6.4형QHD+ 19.5:9화면비 풀비전(FullVision) 디스플레이
- 크기, 무게** 76.1 x 159.2 x 8.3mm, 183g
- CPU** Qualcomm® Snapdragon™ 855 모바일 플랫폼
- 메모리** 6GB + 128GB
- 카메라** 전면 2개, 후면 3개
- 배터리** 4000mAh



삼성·LG, 디스플레이 전략은 '각자도생'

(各自圖生)

업계 최대 전시회 SID 삼성 '실익 없어' 불참 LG, OLED 기술 과시

올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 라이벌 삼성과 LG가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놓고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워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4~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19'에 참가해 자사 OLED 기술력 과시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OLED 제품을 메인으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별도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직접 소리가 나는 88인치 8K 크리스

탈 사운드 OLED와 투명 OLED, 차량용 OLED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콘퍼런스도 열린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폴더블을 비롯해 롤러블, 스트레처블 등 다양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공모 회장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그룹 투자회사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김동수 대표가 최초로 이번 행사에 최고경영자(CEO) 포럼 패널로 참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G화학이 듀폰의 솔루블 OLED 재료기술 사업을 인수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LG는 OLED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4년 만에 전

사회 불참을 결정하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참가 대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매년 SID 전시회에 참석하던 삼성디스플레이는 2015년 처음으로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3년 연속 참가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올해 불참 이유는 CES에서 이미 신제품을 공개한 만큼, 특별히 새롭게 내세울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56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전시회 참가에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삼성전은 전시장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학회 행사에는 참석해 논문 등을 발표하며 내실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열차 고장 예측 가능해진다

현대로템 '스마트 유지보수' 빅데이터 분석해 미리 정비 공항철도와 내년 목표 개발

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7일 철도차량의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기술 개발을 위해 공항철도 주식회사와 '스마트 유지보수체계 공동 개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영 공항철도 주식회사 사장과 이건용 현대로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상태기반 유지보수 기술은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열차의 주요 장치를 실시간 원격 감시해 운행 중 특이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고, 상태정보 및 고장이력 등의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해 차량 정비주기를 최적화하는 선진화된 유지보수 기술이다. 현대로템은 2018년 1월부터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공항철도와 함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로템은 클라우드 기

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주요 장치 상태 진단 알고리즘 및 스마트 유지보수 체계를 개발하고 공항철도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차량 지원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기술협업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스마트 유지보수체계 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태기반 유지보수 기술을 활용하면 최적화된 유지보수 주기를 파악할 수 있고 주요 부품의 고장 예측이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열차의 가용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속철도차량의 경우 상태기반 유지보수 기술을 통해 기존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25~30% 저감되고 예비품 재고는 20~30%가 감소하며 장치의 수명은 20~40% 연장 가능하다.

현대로템은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유지보수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세계 철도차량 유지보수 시장은 약 72조 원 규모로 신규 차량 발주 시장 규모(70조 원)를 추월했으며 연평균 3.2%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대우조선해양·美 선급협회 미래조선·플랜트 연구 협약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5대 선급 중 하나인 미국선급협회(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와 손잡고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해양기술전시회인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19'에서 ABS와 '미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기술 관련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기본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석근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토니 나시프 ABS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한 10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LNG(처리)설계기술 최적화 △높은 경제성의 친환경 해양제품 △차세대 발전 시스템 개발 등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서민트럭, 전기차로 나온다

현대차, 포터 첫 상용 전기차로 제주도 우체국 연말 공급 협약

현대자동차가 올 연말 1톤 포터를 기반으로 한 상용 전기차를 출시한다. 이를 앞세워 제주도 우체국물류지원단에 포터 전기차(EV)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8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현대캐피탈 등과 '제주도 친환경 운송차량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부장(부사장), 김병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김병희 현대캐피탈 부문대표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재 제주도에 내어 운행 중인 우체국 운송차는 현대차의 친환경 전기차 '포터 EV'로 바뀐다. 현대차가 제주도에 공급하는 '포터 EV'의 제작 및 공급을 담당하고, 전기차 전용 추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포터 EV는 택배와 같은 도심 운송 업무



에 적합한 합리적인 상용 EV다. 전기차에 맞게 특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춰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제주도에 있는 우체국 경유차를 친환경 '포터 EV'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캐피탈은 운송차량 도입을 위한 임대 서비스를 비롯해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포터 EV 운송 차량 도입은 올해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차, 정속·안전성 개선 '2020년형 스티어' 출시



기아자동차가 8일 정속성을 개선하고 공기저항 모드를 도입한 2020년형 스티어를 출시했다. 2020년형 스티어는 △전방 충돌방지(FCA, 차량/보행자 감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등을 포함한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를 2.0T/2.2D 플래티넘 모델부터 기본 도입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3.3T GT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전조등 각도를 좌우로 조절하는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DBL: Dynamic Banding Light) △스포츠 모드 연동 운전석볼스터(Bolster) 조절장치 등 첫 도입

해 안전성과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전 모델 윈드실드 차음글래스를 갖춰 정속성을 개선했고, 공기저항 모드를 더해 사용 편의를 강화했다.

2020년형 스티어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 2.0T 프라임 3524만 원 △2.0T 플래티넘 3868만 원 △3.3T 4982만 원 △디젤 모델 프라임라이트 3740만 원 △프라임 3868만 원 △플래티넘 4211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휘발유·전기·수소까지...수도권 첫 복합충전소 짓는다

현대오일뱅크, 울산 이어 두번째 고양 자동차 문화단지 조성 일환 주유소 창고 대여 등 혁신 가속

현대오일뱅크가 수도권에 첫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세운다.

현대오일뱅크는 8일 고양시에 최소 6600㎡, 최대 3만3000㎡ 규모의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동인구에 비해 수송용 대체 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첫 복합 에너지 판매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고양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은 지난해 6월 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초로 울산에 휘발유·경유·LPG·수소·전기 등 모든 수송용 연료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의 문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사이 유휴 공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와 전기 충전기를 설치, 울산지역에 첫 번째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오픈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울산에 첫 복합에너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내 들어설 현대오일뱅크의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스테이션을 오픈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수도권에 또 다른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소차 충전소의 미래 성장성과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소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울산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의 경우 수소충전소를 찾는 고객의 비중이 많은 편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울산 지점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고객보다 수소 충전소 이용 고객이 더 많다"며 "하루에 평균 40대 정도의 수소 자동차 운전자가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속적으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늘려 정부의 수소경제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또 이번 고양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옥상 녹화 등 친환경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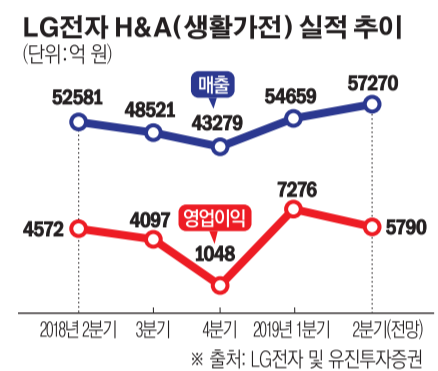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케이월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System·에너지저장장치) 및 재생에너지 산업, 산학연 R&D, 자동차 전시, 튜닝, 교통안전 체험 등을 아우르는 자동차 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고양시는 총 40만㎡에 이르는 이 단지를 국내 최고의 자동차 메카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도 단지 조성 취지에 따라 주유·충전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세차·정비 타운을 만들어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주유소의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직영 주유소 유휴 공간과 네트워킹을 활용, 셀프 스토리지 사업 추진에 나섰다. 셀프 스토리지 사업은 일정 크기의 공간을 자유롭게 개인 창고로 쓸 수 있도록 대여하거나 짐을 박스 단위로 보관해주는 사업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LG전자 가전 또 매출 신기록 세우나

2분기 에어컨 대박 조짐 공청기 등 신가전도 호조



LG전자 H&A(생활가전) 사업 부문이 1분기에 달성했던 매출 신기록을 2분기에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수요 증가와 미세먼지 관련 가전 수요 견인에 따른 결과다.

8일 가전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LG전자 H&A 사업 부문은 2분기에 분기 매출 신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노경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H&A 사업 부문 2분기 매출을 5조7270억 원으로 예상했다. 종전 기록은 올해 1분기에 거둔 5조4659억 원이다. 보고서는 H&A 사업 부문 2분기 영업이익을 5790억 원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727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H&A사업 부문이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에어컨이 있다. 가전업계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2분기를 에어컨 성수기로 분류한다. 특히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을 구매할 소비자는 과거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LG전자는 에어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1월에는 교감형 인공지능과 전작보다 향상된 공기청정 기능을 도입한 2019년형 LG 휘센 씽큐 에어컨을 공개했다. 한 달 후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 또한 신기록 달성에 큰 역할을 한다.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는 여름에도 발생하는 등 사계절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향후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내 국내 시장에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선보인다. LG 홈브루는 기기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5ℓ의 맥주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 변경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 등으로 핵심 계열사도 새 이름

한국타이어그룹이 8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브랜드인 '한국(Hankook)'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Hankook Technology Group)'으로 변경한다.

기업 브랜드인 '한국(Hankook)'의 정체성을 기술 기반의 혁신 그룹으로 재정 의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인지도 증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주)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Hankook Tire & Technology)'로 변경된다.

1944년 창립 이래 70여 년 동안 창조적

혁신과 도전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표 기업인 (주)아트라스비엑스는 '(주)한국아트라스비엑스(Hankook AtlasBX)'로 바뀐다.

독자적인 주조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로 타이어용 몰드, 타이어 가류용 컨테이너, 정밀 부품 등의 사업 분야를 선도해 가는 금형제조전문기업 (주)엠케이테크놀로지의 사명은 '(주)한국프리시전웍스(Hankook Precision Works)'로 변경된다.

아울러 IT 서비스 및 물류 엔지니어링 기업인 (주)엠프론티어는 '(주)한국네트웍스(Hankook Networks)'로, 타이어 제조 핵심 설비 전문기업인 (주)대화산기의 사명은 '(주)한국엔지니어링웍스(Hankook Engineering Works)'로 거듭난다.

한국타이어그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속하게 해줄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THE 37th
KOREA THEATER
FESTIVAL
IN SEOUL

I · SEOUL · U
너와 나의 서울

대한민국 연극제

제37회

in 서울

2019.
06.01.
- 0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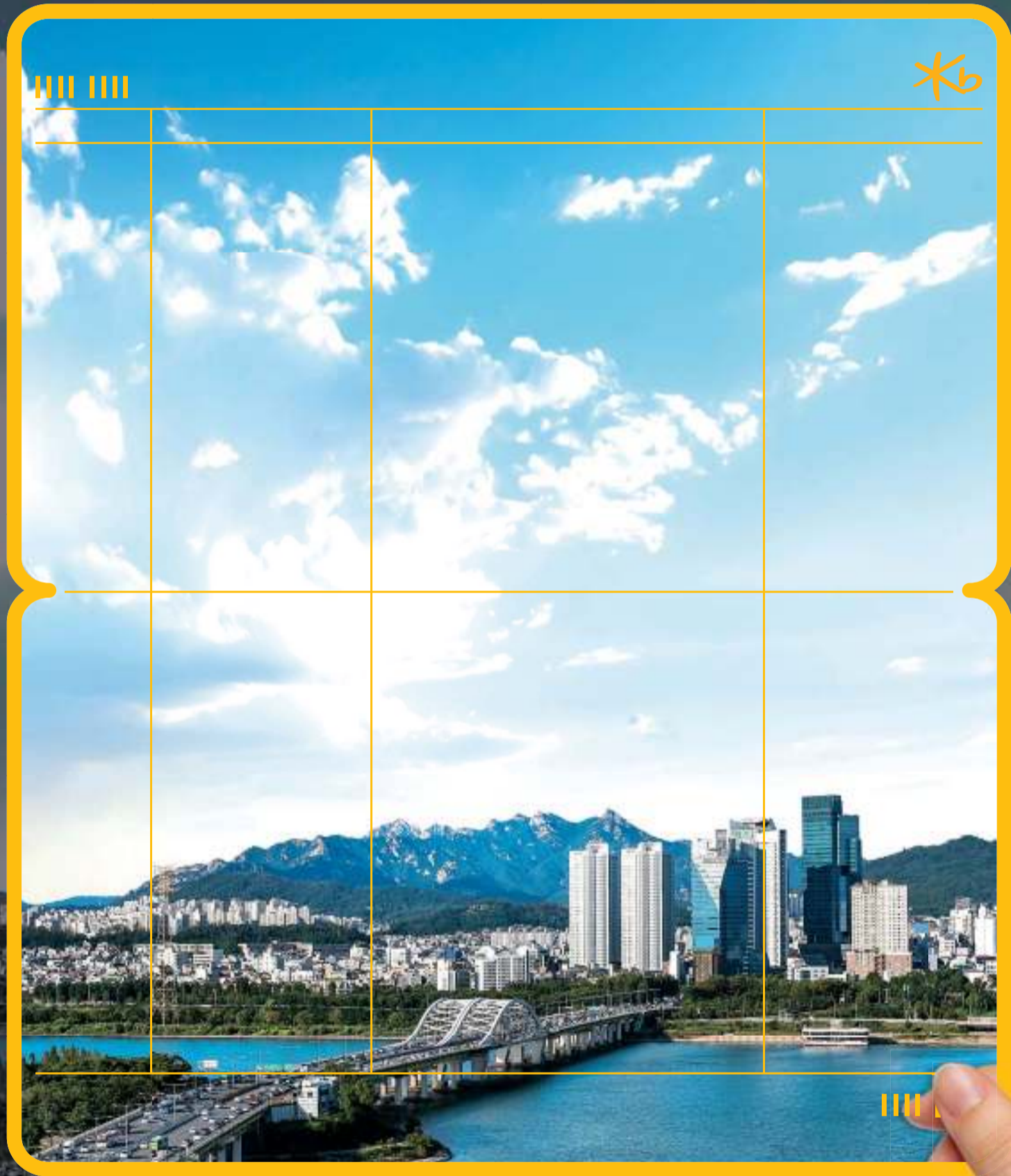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동양예술극장 2관
SH아트홀
대학로 일대

주최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주관 서울연극협회,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
후원 총로구청,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한국작가협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공연관광협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미인협회,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늘의 색을 바꾸다

KB맑은하늘적금 | KB맑은하늘공익신탁 출시



KB맑은하늘적금

1계좌당 1천원씩 기부하여 맑은하늘 숲 조성

[우대 금리 제공] 종이 통장 미발급, 대중교통 미선 달성 시 등
[무료 보험 제공]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공익신탁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보일러 기부 사업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상품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KB맑은하늘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하늘공익신탁] ※ 상품 가입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308호(2019.03.13)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1084호 (유효기간 : 2019.12.31까지)

온라인 영어학습 '왕좌의 게임'... 뇌새김, 시원스쿨 제쳤다

국내 온라인 영어교육 시장의 왕좌 수성이 쉽지 않다. 철옹성 같았던 '시원스쿨'이 업계 1위 자리를 '뇌새김'에 내줬다. 야나두와 스피킹맥스 등 후발 주자들도 1위 브랜드와 격차를 좁히고 있어 당분간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각 업체에 따르면 위버스마인드가 서비스하는 '뇌새김' 온라인 영어가 지난해 '시원스쿨'을 제치고 처음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 가수 이승기를 홍보 모델로 기용했던 뇌새김은 지난해 53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14.45% 상승한 수치다. 뇌새김은 매출 뿐 아니라 영업이익 130억 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5% 오른 기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덕분에 당기순이익도 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1%의 실적을 거뒀다.

뇌새김 기초영어는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스피킹 학습을 연구해 만든 132가지 스

132가지 스피킹 핵심어법 강의 44가지 스토리학습 참여형 강의 뇌새김, 전년보다 매출 14.5% ↑

시원스쿨, 488억 매출... 37% 뚝 야나두는 45% 경중 성장세 뚜렷

피킹 핵심 어법 강의와 44가지 스토리 학습으로 구성된 참여형 강의가 특징이다. 회사 측은 '영단어+원어민 발음+그림+뜻'을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도록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높여주는 스토리텔링 암기법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서비스하는 시원스쿨은 지난해 48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36.98% 줄어든 수

업체별 실적	뇌새김	시원스쿨	야나두	스피킹맥스
매출	537억 원 (14.45%)	488억 원 (-36.98%)	450억 원 (45%)	240억 원 (56.28%)
영업이익	130억 원 (8.45%)	67억 원 (40.5%)	25억 원 (400%)	적자전환 (-3억8000만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 (7.41%)	52억 원 (46.94%)	자료없음	적자전환 (-6억4000만 원)

치다. 시원스쿨은 2016년 매출 1380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시원스쿨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전년 대비 실적 상승을 꾀한 것이 위안이다. 영업이익은 67억 원, 당기순이익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50%, 46.94% 늘었다. 시원스쿨 측은 흡소퐁 판매 및 스마트팜 판매 감소 등이 매출 약화에 영향을 미쳤

고 설명했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5년 연속 외국어교육 부문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전히 시원스쿨의 명성은 최고"라며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시원스쿨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상의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나두는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다. 야나

두는 지난해 매출 4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 증가율을 보였다. 업계 진출 첫해인 2016년 매출 34억 원에서 무려 13배 이상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400%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모델인 배우 조정석을 기용한 효과를 톡톡히 봤고, 마케팅과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10분 콘텐츠'로 승부를 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야나두는 올해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영어회화뿐 아니라 자기계발 플랫폼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스터디맥스가 서비스하는 스피킹맥스는 올해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은 급감했다. 매출은 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8% 늘었다. 반면 영업손실은 3억8000만 원, 당기순손실도 6억4000만 원이나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 측은 판촉비 등 홍보 비용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yes@



SK매직 '하이브리드레인지'. 사진제공 SK매직

필립스 '트윈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 사진제공 필립스

불 없는 주방가전 시대

쿠쿠, 1분기 전기레인지 판매량 전년보다 79% 경중 필립스, 지난해 에어프라이어 매출 700% 수직 성장

불 없는 주방가전이 인기가. 미세먼지 영향으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8일 쿠쿠는 하이브리드레인지, 하이브리드레인지, 인덕션레인지 등 자사의 1분기 전기레인지 판매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78.5% 늘어났다고 밝혔다. 동시에 4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113.4% 증가했다.

쿠쿠는 "가스레인지와 달리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전기레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 또한 급격한 성장세"라며 "업계에서는 올해 전기레인지 시장 규모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기레인지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SK매직도 1분기 전기레인지 판매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SK매직의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대에서 33% 증가했다. SK매직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13만 대로 전체 시장에서 18%가량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첸이 약 9만 대를 판매해 13%를 차지했고, 린나이아가 5만4천대를 판매해 7.5%를 점유했다"고 덧붙였다.

렌탈 업계 웅진코웨이는 올해 1월 전기레인지 렌탈 사업을 시작했다. 이 전까지 전기레인지 모델은 일시불 판매만 하다가 렌탈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상판 교체 등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렌탈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30개월 차가 되면 음식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판을 무상 교체하는 등 관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방가전 '필수템'이 된 에어프라이어도 미세먼지 덕을 보고 있다. 전자레인지와 오븐의 기능을 합한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덜 사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삼겹살, 생선 등을 연기 없이 조리할 수 있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011년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시장에 내놓은 필립스는 아직 올해 1분기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에어프라이어 제품의 매출 증가율은 2017년 대비 700% 이상이라고 밝혔다. 종합 생활 가전용품 브랜드 테팔은 올해 9월 에어프라이어 신제품을 내놓는다. 테팔은 2015년 에어프라이어를 출시했다가 한국 시장에서는 그해 단종했다. 2017년부터 에어프라이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올해 다시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출시한 해피콜도 올해 크기와 디자인을 다양화해 에어프라이어 신제품을 대거 내놓을 계획이다. 해피콜 관계자는 "에어프라이어 반쪽인기 아이템이 아닌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즈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삼성SD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 공개 홍원표 대표 "기업고객 디지털 혁신 지원"

홍원표 삼성SDS 대표는 8일 "삼성SDS의 경험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Digital Transformation Framework)'로 고객의 성공적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근 많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실행하는 기업도 있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업계의 화두로 자리 잡았고, 경영 전략에서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홍 대표는 자사의 서비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는 고객의 생산, 마케팅·영업, 경영시스템 등 전 사업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 노하우와 IT신기술 역량을 집대성해 체계화한 것이다.

홍 대표는 "삼성SDS 핵심 역량의 방향 제공과 수행으로 실질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수행 체계도 수립해줄 수 있다"고 강조



홍원표 삼성SDS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리얼(REAL) 2019'에서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며 "제조, 리테일(소매), 공업, 농업, 의료 등에 수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로 최

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능화 솔루션의 고도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재철 부사장은 "기존 지능화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화로 전환하고, 자동화 솔루션의 중심인 스마트팩토리를 플랫폼 기반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등 플랫폼과 물류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결성을 높인 솔루션을 제공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출시한 차세대 블록체인 솔루션 '넥스트레지 유니버설'을 활용한다.

홍원표 전무는 "금융의 인증, 해운의 물류 등 단순한 형태의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물류 처리 이후 반드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해 블록체인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독자 합인 기술과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등 블록체인 간 연결성을 지원해 편리하게 플랫폼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막 오른 고급택시 플랫폼 시장

VCNC, 13일부터 '타다 프리미엄' 프리오픈 테스트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과 고급택시 시장 3파전 전망

VCNC의 타다 프리미엄이 프리오픈 테스트를 시작하며 고급택시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VCNC는 서울에서 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의 프리오픈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시작하는 테스트에는 3000명의 탑승객을 모집한다.

타다 프리미엄은 2월부터 개인 및 법인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모집해 왔다. 당초 4월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서울시가 고급택시와 관련한 보증금을 요구해 출시가 무산된 바 있다.

타다 프리미엄 출시로 고급택시 시장은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등 3파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카카오블랙은 2015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우버블랙은 2016년에 출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급택시는 일반택시와 다르게 기업 고객들이 주요 이용한다. 일반택시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비즈니스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에 업체에서는 일반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이번 프리오픈 테스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프리오

픈기간 운영 노하우를 쌓고 정식 출시 때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타다 프리미엄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타다 베이직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시간대에서는 탄력요금제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카카오블랙은 지난달 부산과 경남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울과 인천에서만 운영됐지만 전국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기사들이 배치되며,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마이바흐'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9일에는 하루 종일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펼치는 등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조성준 기자 tati@

위기의 편의점 “이종 간 뭉친다”

출점 절벽에 처한 편의점 업계가 경기 불황을 넘어서기 위해 이종 업종과 손잡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펴고 있다.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을 매장에 입점시키는가 하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해외 편의점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는 8일 수제 맥주 ‘광화문’이 대만으로 수출돼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은 GS리테일과 코리아크래프트브루어리가 함께 제휴해 GS25와 GS수퍼마켓에서 작년 6월에 처음 선보인 수제 맥주다. 지난달 27일부터 대만 세븐일레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5300여 현지 점포 중 80% 이상의 취급률을 보이고 있다. 판매 10일 만에 2만 캔 넘게 팔리며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색적인 부분은 GS리테일이 대만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채널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국내 세븐일레븐과 대만 세븐일레븐은 다른 회사이지만, GS리테일이 국내에서 GS25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와 손잡는 사례로 꼽을 만하다.

GS리테일은 최근 수년 동안 타사 플랫폼을 통해 PB(자체브랜드) 제품을 수출해왔다. 지난해 선보인 유어스벚꽃스파클

링 30만 개 역시 3월 대만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됐다. 또한 홍콩과 중국, 베트남 등 20여 개국에 ‘유어스오모리김치찌개라면’, ‘유어스홍라면매운치즈볶음면’ 등 20여 개 상품을 수출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대만 등에서 한류 열풍이 거센 가운데 이색적인 편의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 미주가 포함된 20개국으로 확대



대만 세븐일레븐 SNS에 소개된 수제 맥주 ‘광화문’.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에 입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2월 수원 광고 SK충전소에 이어 3월에는 에쓰오일과 손잡고 서울 강서구 하이웨이 주유소에 무인 편의점인 ‘시그니처점’을 오픈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부터는 프랜차이즈 BBQ와 협업해 날개 포장 판매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현재 1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치킨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 이마트24는 흡인습 실험에 집중하고 있다. 흡인습은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1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전남 목포 주유소 2곳을 임차해 ‘편의점 주유소’를 선보인 이마트24는 3월에는 청담 본점에 ‘리깅밥’과 ‘공차’를 입점시켰다. 같은 달 대구 동성로 점포 내에는 ‘국대떡볶이’를 오픈했다. 이마트24는 김밥집과 토스트 매장, 커피숍 등 흡인습 매장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들과 다른 업체의 협력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집객 효과에 사업성까지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주현 기자 jooh@

연기된 주세법 개정 ‘주종 갈등’ 부추기나

최근 주류값 인상 줄이어 개편안 발표 연기에 영향 수제맥주협 “정부 의지 의심”



기획재정부가 50년 묵은 주류세 개편 시기를 또다시 미루면서 주종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주류업계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주세법 개정안의 연기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소주, 맥주 가격이 인상된 점이 개편안 발표 연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주의 경우 이달부터 식당이나 주점에서 1병 5000원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참이슬이 5월 1일부터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함으로써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가량 올랐다. 원부자재가격, 제조경비, 유통비용 증가 등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지만, 주세 개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값을 올렸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된다. 2~3위 업체들이 선두 기업을 따라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도 주세법 개편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주류업계 내 소주와 맥주, 전통주까지 다양한 주종 간 이해관계가 ‘백가쟁명’식으로 제각각이다 보니 기재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주세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와 위스키, 화요, 안동소

주, 고급 와인 등에 붙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 맥주, 소주, 복분자주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주류세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던 주세법개정추진회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6개월 사이 3번이나 지연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의심된다”며 “4조원이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표류 중”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산 맥주업체라 해도 모두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맥주만 생산하는 오비맥주(카스)의 경우 종량세 도입에 환영하고 있지만 소주와 맥주를 동시에 보유한 하이트진로(참이슬, 하이트)나 롯데주류(처음처럼, 클라우드)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처지다.

이미 소주와 맥주 1위업체가 출고가격을 인상했지만 주세 개편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물가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 캔 맥주의 경우에도 현행 종가세 체제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데 비해 생맥주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량세로 주세를 개편하면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60%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제품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여름 차렵이불이 3만9900원”

이마트는 차렵이불과 누빔패드, 베개커버 3종으로 구성된 ‘시어써커 이불 3종 세트(칼린, 리프, 셀비어)’를 3만9900원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불 세트는 통기성이 좋고 건조가 빠른 시어써커 원단을 사용해 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좋고, 100% 국내산 솜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이외에도 15일까지 프리미엄 베개인 ‘템퍼’ 베개 4종을 행사 카드로 구매 시 각 2만 원 할인한 7만9000~9만 900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침구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유통업계 ‘공공의 적’ 떠오른 coupang

위메프 이어 롯데마트 최저가 경쟁 쿠팡 로켓배송 내세워 고객 확대 유통업체 경쟁 상대 지목 잇달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쿠팡’을 라이벌로 선언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려는 여타 이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까지 쿠팡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쿠팡보다 싸면 차액 보상’ 정책을 전면으로 내걸었다. 로켓배송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며 거래액을 늘려나가는 쿠팡을 직접 겨냥해 쿠팡으로 쏠린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메프는 8일 자사 식품 카테고리 매출 1위~5위 상품 가운데 74%에 달하는 37개가 쿠팡 상품보다 저렴(위메프 배송비 포함, 쿠팡 배송비 미포함)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최저가 보상제’를 선언한 위메프는 식품·생활·유아동 등 생활필수품 카테고리 상품 가운데 쿠팡보다 가격이 싸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공격적인

1위	2위	3위
백신 모카골드 커피믹스 100T	[18년형] 여주농산 이마트산 쌀 20kg	원라당 홍삼정 보양 톨라스 24kg
11,500	47,500	167,400
12,500	50,900	177,200

쿠팡과 식품군 가격 비교표를 만든 위메프.

사진제공 위메프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롯데마트 역시 쿠팡을 겨냥해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쿠팡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최저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인 쿠팡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쿠팡이 이커머스 업체를 넘어 대형마트의 라이벌로 꼽힌 배경은 로켓배송 정책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해 세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 품목 수를 지난해 500만 종으로 늘렸고, 이 모든 상품을 자정까지 주문하면 1

년 365일 다음 날 배송해 준다. 여기에 쿠팡은 지난해 10월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론칭해 자정까지 주문한 신선식품을 오전 7시 전에 배송해준다. 쿠팡 관계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쿠팡의 장점은 빠르고 확실하게 배송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쿠팡의 경쟁력이 빠르고 정확한 배송에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최저가 보장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체성이 뚜렷한 쿠팡의 배송 서비스에 일시적인 가격 경쟁으로만 승부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신라인터넷세점 “5월 부부고객 모집입니다”

획일적인 구매실적별 분류 대신 라이프스타일별 마케팅 차별화

신라인터넷세점이 고객 관리 방법을 다양화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나선다. 구매 실적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관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신라인터넷세점은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아 부부 고객 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여행 혜택, 구매 혜택, 제휴 혜택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러 사랑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부부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이러 사랑방’ 서비스는 부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라인터넷세점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섯 가지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 ‘라라클럽’ 중



하나인 ‘이러 클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이러 사랑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 유무 및 자녀 나이에 따라 다섯 가지 사랑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속된 사랑방 특징에 따라 여행 혜택(맞춤 여행지 추천 및 여행 기회 제공), 구매 혜택(관심 상품 추천 및 가격 혜택), 제휴 혜택(일상 제휴처 혜택)을 차별화해 제공한다.

신라인터넷세점 관계자는 “사랑방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혜택을 강화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日 상장 리츠 시총 128兆... 한국, 1兆 미만 '꼴찌'

글로벌 시장 규모 1조3000억 달러 5년 새 1.5배 성장
日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상승세... 글로벌 2위·亞 1위
韓 5개사 상장 그쳐... "稅혜택 등 수반돼야 본격 성장"

국내 상장 리츠산업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으로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의 활성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 글로벌 리츠지수인 EPRA에 따르면 글로벌 상장 리츠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5년 사이에 1.5배 성장했다.

한국은 시총 1조 원, 상장수 6개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으로 시총 1230조 원, 상장수 200개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높다. 도입 시기와

목적 등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시총 128조 원, 61개사가 상장된 일본은 글로벌 2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리츠란 부동산 공동구매를 통해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투자다. 8일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7295억 원, 전체 리츠 중 상장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시총 규모로 비교하면 미국의 0.06%, 일본의 0.56% 수준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국내 상장 리츠는 △에이리츠 △케이탑 리츠 △모두투어리츠 △이리츠코캡 △

주요 국가별 상장 리츠 현황

(단위: 원, 2018년 기준)

국가	상장수	시총금액	EPRA 지수 편입 수
미국	200	1230조	132
일본	61	128조	32
호주	50	101조	12
영국	52	87조	31
프랑스	29	68조	6
캐나다	47	61조	16
싱가포르	35	60조	9
홍콩	9	36조	3
한국	6	1조	0

※출처: EPRA

신한알파리츠 등 총 5개사. 트러스트7호는 7일 해산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됐다. 시가총액으로 3000억 원이 넘는 것은 이리츠코캡(3420억 원)과 신한알파리츠(3001억 원)뿐이다.

반면 일본의 J-REITs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지만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며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은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됐다"며 "시장 침체 시 규제 완화로 해외부동산의 기초자산 편입을 허용해 시장 규모를 확대했고 합병이나 자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해 투자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 리츠 성장을 위해서는 공모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분리과세 등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리츠의 기초자산 다양화 등이 수반돼야 상장리츠의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리츠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부

분 고액투자자인데 현재는 배당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이점이 없는 상황이다. 또 객관적인 투자 정보 부족으로 개인 투자자 접근도 쉽지 않다. 리츠 관할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된 것도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 연구원은 "일본은 개인재산종합관리 계좌(NISA)로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개인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이 필요하며 현재 상업시설, 오피스에 집중된 기초자산을 주택, 물류, 헬스케어 등으로 넓혀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기자 yerin2837@

피 말리는 美·中 무역협상... 증권가도 '축각'

"최악 상황 대비" vs "상반기 중 타결" 의견 엇갈려

국내 증시가 10일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휘청인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증권가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98포인트(0.41%) 내린 2168.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며 2160선까지 후퇴했지만 밤 사이 미국 뉴욕증시가 2% 가까이 급락하고 일본 도쿄증시가 1% 넘게 빠진 것에 비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중 무역협상이 결과를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협상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두연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현실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무역협상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을 압박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는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재현 현대차 연구원도 "현재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마지막 합의를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연초와는 다르게 양국의 금융시장과 경기가 모두 안정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양국의 경기 리스크

측면에서, 협상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예정대로 회담에 참석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시나리오라면 궁극적으로는 미·중 협상이 상반기 중 타결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프라이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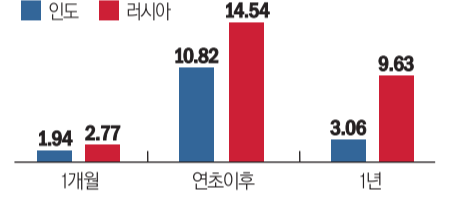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도 "10일 협상 타결에 이어 6월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무역협상이 중단되고, 기존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상향, 나머지 3250억 달러 수입품 관세부과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유가상승 덕 보는 '러시아펀드'

수익률 연초 이후 14% 증가
인도펀드 한달새 1%대로 뚝

인도·러시아 펀드 평균 수익률 비교
(단위: %, 7일 기준) ※ 출처: 에프앤가이드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펀드와 인도펀드의 수익률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러시아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7일 기준)은 2.77%다. 2월 말 0.40%, 3월 말 0.63%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데, 기간을 3개월, 연초 이후로 늘려보면 수익률은 2.59%, 14.54%에 달한다.

개별펀드로 보면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 증권투자신탁(3.63%)와 상장지수펀드(ETF)인 한국투자KINDEX러시아 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3.61%)이 최근 1개월 기준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인도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4% 수준이다. 인도펀드는 2월 말 1.58%에 그쳤지만 3월 말 10.80%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최근 한 달 새 다시 1%대로 주저앉았다.

반면 인도의 경우 원유 소비량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다. 이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원유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롯데관광개발, 유증 통해 유동자산 늘렸지만 말라가는 '현금흐름'

롯데관광개발의 유동성과 현금흐름이 줄어들고 있다. 재무제표상의 감소세는 아직 없지만 유동자산으로 계상된 공사 중도금이 점차 빠져나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지난해 연결 기준 유동자산은 총 2201억41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3분기만 해도 505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유동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4분기에 진행된 유상증자의 영향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0월 유상증자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달된 자금은 총 2158억 원으로, 이 중에는 제주드림타워에 들어간 1·2차 중도금 15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1차 중도금 1000억 원 중 약 700억 원이 납입됐으며 2차 중도금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애초 모두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1차 중도금 역시 300억 원 정도가 남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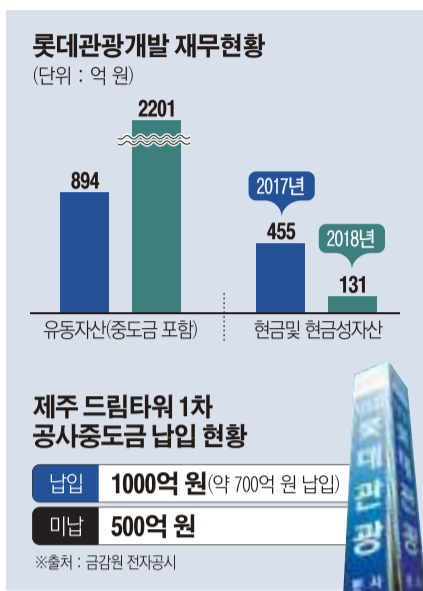
중도금 납입이 완료될 경우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에 포함됐던 1500억 원은 공사에 투입됐다고 보고 비유동자산 항목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경우 유동자산이 급감하면서 295%인 현재 유동비율 역시 100%대로 다시 내려갈 위험이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6년(102.19%)과 2017년(102.85%) 모두 100%대의 유동성 비율을 이어왔다. 200% 이상을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유동부채 역시 감소할 요인이 있어 조금이나마 절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유동부채로 잡혀 있는 전환사채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부채가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이 전부 나감도 유동부채 감소로 인해 최종적으로 유동비율은 160%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물론 일반적으로 200%를 건전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사 부채비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재무건전성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유동자산이 일시적이지만 늘어난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홀로 급감한 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단기(보통 1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전년 대비 3.46배 줄어든 131억4497만 원 수준이다.

제주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 짓고 있는 지상 38층, 지하 5층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



작년 유동자산 2201억... 2.5배 ↑ 중도금 납입하면 유동비율 100%대로

지난해 영업익 40% 감소한 30억 당기순손실 1128억으로 적자전환 실적악화에 완공후 지불비용도 부담

사가 진행 중이다. 현금자산을 비롯한 유동자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으로부터 3000억여 원의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율 등을 조정 중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기록하며 현금흐름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62% 감소한 30억 원, 당기순손실은 1128억7412만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억5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줄었고, 마이너스를 줄곧 유지해오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무려 65배 늘어난 -2118억6965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영업과 투자활동 모두에서 지난해 현금을 창출해내기 쉽지 않았던 셈이다.

완공 후 지불될 비용도 주목할 대목이다. 롯데관광개발은 공사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인 녹지그룹으로부터 850개 객실의 계약 권리를 이전받아 20년간 연 6%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8년마다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밝힌 상태다. 마이너스 실적인 지난해를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드림타워) 오픈 이후 카지노를 비롯한 전체 운영을 통한 매출 자금을 전제로 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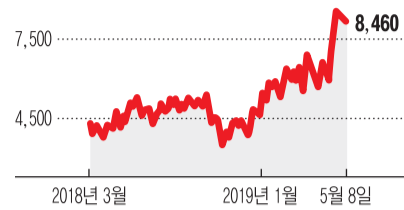
에이스테크, 전환사채 물량 주의보

7일 119억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 현재 절반... 추가 가능성 부채비율 300%대로 완화 기대

코스닥 상장사 에이스테크가 과거 발행한 대규모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다만 CB의 주식 전환으로 자본금이 확충되면서 부채비율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스테크는 전날 119억 원 규모의 CB가 전환청구권 행사돼 20일 주식시장에 상장된다고 밝혔다. 전환가액은 3906원이며 발행 주식 수는 304만 6591주다. 에이스테크는 RF부품, RRH(Remote Radio Head),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안테나, 중계기 등의 무선통신 사업과 무선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방산 및 차량용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5G 관련

에이스테크 주가 추이 (단위: 원)



통신과 방위산업 테마에 속해 있다.

회사의 실적은 2016~2017년 연속적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실적 턱어라운드 성공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 연결기준 4219억 원에서 2016년 3221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3516억 원, 지난해 3773억 원으로 회복됐다. 영업이익 역시 2015년 151억 원에서 2016~2017년에는 138억 원, 145억 원 적자를 냈다가 작년 132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2015년부터 시작한 생산거점의 베트남 이전 작업이 완료된 게 큰 도움이 됐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과 CB 발행으로 조달했다. 최근까지 남아 있던 물량으로는 12회와 21회 사모 CB가 있다. 12회는 2016년 11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올해 초 마지막 물량인 14억 원 규모 CB가 전환청구됐다. 하지만 2018년 5월 발행한 250억 원 규모 CB가 전환청구됐거나, 할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에이스테크는 당시 원자재 매입(145억 원), 기발행 CB의 조기상환대금(105억 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50억 원어치 CB를 발행했다. 최초 전환가액은 4306원이었지만 3906원으로 재조정돼 전환 가능 주식 수는 640만 주에 달한다. 현재 유증 주식 수 3455만여 주의 18.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특히 전환가액이 8일 증가인 834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 외에 남아 있는 131억 원 규모의 CB 역시 주식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빚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5월 8일 17:00, KST)

전일 대비	13,000원 (0.2%▲)	6개월 대비	648,967원 (10.5%▲)
전일 대비	-6,900원 (3.4%▼)	6개월 대비	537원 (0.3%▲)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0,200	-8,300 (2.5%▼)	모네로	77,250	-1,700 (2.2%▼)
리플	353	-6 (1.7%▼)	비트코인골드	20,500	-490 (2.3%▼)
라이트코인	85,000	-3,100 (3.5%▼)	이더리움 클래식	6,560	-120 (1.8%▼)
대시	136,900	-3,500 (2.5%▼)	퀵텀	2,852	-95 (3.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살 때 티레이다. 팔 때 티레이다. 투자 타이밍이 더 티레이다. 인공지능 티레이다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는 어떻게? 심박혈관질환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다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다, 티레이다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팀 제9-62호(2019.02.28)

“검단·운정 물량 남았는데…” 2기 역차별 논란

‘3기 신도시’ 지정 후폭풍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놓고 관련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로의 분산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2기 신도시 역차별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제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일대.

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후보지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약 8개월여 만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타깃으로 정한 만큼 서울 내 공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이나 관공사 용지 등을 활용해 약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자투리땅 성격의 토지까지 모두 활용해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

2기 신도시 미분양 우려 시선 임대비율 높이거나 도로 지하화 서울 내 주택공급도 고민해봐야

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기가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급등 우려를 이유로 강남이나 여의도 등의 재건축을 막고 있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고 보완책을 통한 규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거나 주요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토지 확보 등으로 서울 내 공급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입지 발표로 2기 신도시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정부가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벌써부터 불거지는 만큼 이 역시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마무리 되지 않은 지역들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 2000여 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2기 신도시 분양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분양 물량의 경우도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의 지난해 하반기 첫 분양 단지들이 관측은 분양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관심이 뚝 떨어졌다.

김포 신도시나 인천 청라, 일산 등 경기권뿐 아니라 은평구, 강서구 마곡 등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가 1, 2기 신도시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 시간이 1.2배~1.5배로 연장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강남불패’ 여전... 현금부자 몰린 청약시장

‘로또 청약’ 딱지를 떼더라도 강남 아파트 분양은 흥했다. 분양가가 높다는 시각과 유주택자에 불리한 청약제도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는 여전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급한 ‘방배그랑자이’는 7일 1순위(당해지역) 청약에서 256가구 모집에 2092명이 몰렸다. 이에 평균 8.17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강남구 일원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포레스트’도 지난달 30일 청약을 진행해 평균 16.06대 1 경쟁률로 1순위

‘디에이치’ 경쟁률 16대 1 이어 ‘방배그랑자이’ 8.17대 1 기록 중도금 대출 막혔지만 선방

마감했다. 62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 996건이 이뤄졌다.

두 단지 모두 강남권 분양 때마다 꼬리표로 달리는 ‘로또 청약’과 거리가 멀었다.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4687만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 보증 승인을 받았다. 이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디에이치포레스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569만 원으로, 소규모 단지임에도 지난해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보다 10% 비쌌다.

더군다나 가장 싼 가구형도 10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걷기까지 해 10억 원 이상 가진 ‘현금부자’가 아니면 분양받기 사실상 어려웠다. 때문에 두 단지 모두 강남의 저력을 보여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2월 광진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경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해 서울 청약시장의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 단지 역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서 미분양이 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첫 강남권 분양 단지들은 이 같은 논란을 돌파한 셈이다.

단,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점과 당장 시세 차익이 보장되지 않은 점은 경쟁률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공급된 래미안리더스원과 디에이치라클라스는 청약제도 변경 전 막차를 탄 강남권 분양단지다. 당시 래미안 리더스원은 평균 41.69대 1, 디에이치라클라스는 23.94대 1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갸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호를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에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한국 찾은 외국 관광객 “식도락·쇼핑 가장 만족”

2018년 관광객 실태조사

재방문을 전년보다 4.5%P 상승
전반적 만족도·지출금액은 줄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만족도와 지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 기간, 지방 방문 비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식도락과 쇼핑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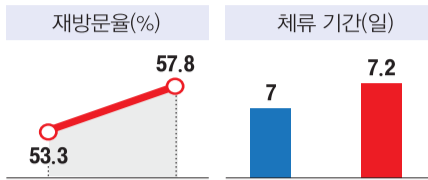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1만6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래 관광시장은 2017년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1535만 명을 유지해 15.1%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외래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는 94.8%에서 93.1%로 1.7%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언어소통' 만족도가 66.2%에서 60.5%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로 인도(36.2%), 독일(39.5%), 싱가포르(46.4%), 말레이시아(47.6%) 등 비영어권 및 동남아 지역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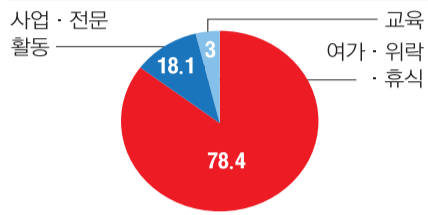
방한 외래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017년에 비해 139.2달러 감소한 1342.4달러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컸던 중국인(1887.4달러)의 비중 감소와 지출 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인(791.1달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현금·수표 지출이 711.8달러(5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용·체크카드 596.8달러(44.5%), 스마트폰(전자화폐) 33.8달러(2.5%)가 그 뒤를 이었다.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재방문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 기간은 전년 7.0일에서

작년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특징



방한 목적(%)



주요 참여 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7.2일로, 지방 방문 비율은 전년 49.3%에서 49.6%로 늘었다. 한국에서 한 주요 활동은 중복 응답으로 쇼핑이 92.5%, 식도락 관광이 71.3%를 차지했다. 가장 만족한 활동은 식도락 관광이 가장 높았다.

방한 전 외래 관광객이 가장 필요했던 정보(중복 응답)는 '이동 거리 및 교통편'(52.4%), '방문지 정보'(47.3%), '음식 및 맛집 정보'(46.8%)란 응답이 많았다. 정보 입수의 주된 경로는 '친지, 친구, 동료'(51.0%), '국제적 인터넷 사이트·앱'(47.6%) 및 '자국의 인터넷 사이트·앱'(41.3%) 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외래 관광객들의 만족도, 지출 경비 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외국어 노선도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의료·웰니스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강화, 중국 소득 상위 도시대상 복수 비자 발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버스대란 오나...파업 찬반투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운전사 4만1000여명이 주52시간제 도입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8일 찬반투표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차량이 정차돼 있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이날과 9일 이틀간, 서울지역 버스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이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전국 노선버스 2만 대가량이 운행을 멈춰 대중교통 이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호텔 ‘역세권 청년주택’ 1호로 탈바꿈

238가구 규모...2020년 입주

서울 도심의 호텔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관광호텔로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9515.87㎡)이 총 238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신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1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유럽순방 중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과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상안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이후 첫 추진 사례다.

도심 공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도심에 직장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확보해 잠재됐던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기존 호텔 객실 총 238실이 그대로 청년주택으로 전환된다. 신혼부부용 주택 2호를 제외한 나머지 236호는 직장인·대학생들을 위한 1인1가구용 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택으로 조성된다. 지하 1·2층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북카페같이 입주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종로구 송인동 207-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송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9일 고시한다.

'베니키아호텔'은 2015년 12월 15일 건립 이후 관광호텔로 운영 중이다. 사업주는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제출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2만9000명 대상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정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소소한 행복을 담는다... '어른들의 놀이터'를 찾아서

2019 시니어 추천 아지트

당신의 아지트는 어디인가? 물론 특정한 한 곳만을 아지트로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날씨, 기분, 개인 욕구에 따라 가고 싶은 장소가 달라지기도 한다.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최근 실시한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에서 '시니어를 위해 생겨났으면 하는 아지트 유형은?'이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문화공간, 학습터, 쉼터를 꼽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쉬고 싶을 때 찾으면 좋을 공간을 소개한다.

樂 한국전통식품문화관 다양한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1층 '전통주갤러리'에서는 '이달의 시음주'로 선정된 5개의 전통주를 매달 무료로 맛볼 수 있으며 구매도 가능하다. 조선 3대 명주를 포함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특별 시음회도 열린다. 참가비는 1인당 2만5000원.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원이어야 하며 늦어도 하루 전날 예약하는 게 좋다.

2층은 식품명인카페 '이음'과 판매점, 3층은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페 '이음'에서는 식품명인의 입차와 감식초, 식혜 등 전통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맛볼 수 있다. 평일에는 체험관에서 식품명인의 레시피를 활용한 한과, 전통주, 떡, 조청 만들기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토요일엔 매주 다른 분야의 명인을 만나 강연도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시 예약 필수.

청춘극장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니어 전용 극장이다.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자는 2000원

'전통식품문화관'서 전통주 시음
'청춘극장' 2000원에 영화 관람
'서울책보고'서 헌책 구경 재미도

에 1950~90년대 추억의 영화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수요일엔 영화 상영이 없고 '시네마 테라피', '청춘! 싱어롱', '청춘은 때창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무료 음악 교실, 오후 1시와 3시에는 '청춘유랑극단쇼'가 열린다. 예매는 토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그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영화 상영, 공연 일정은 청춘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學 서울책보고 최 근문을연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1465㎡ 규모의 신천유수지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공공 헌책방이다. 책벌레를 형상화한 비정형 나선 구조의 거대한 헌책 장서가를 사로잡는다.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있던 25개의 헌책방을 모집해 10만여 권의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독창성과 희소성 있는 독립출판물 2000여 종과 명사의 기증 도서 1만여 권도 전시되어 있다. 독립출판물과 기증 도서는 구매가 불가하고 서울책보고 내에서 읽는 것만 가능하다. 또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절판된 서적도 구매할 수 있으니 추억의 헌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서울책보고로 가보자.



즐기고

배우고

쉬고

청운문화도서관 자연 속에 위치한 한옥형 문학특화도서관이다. 시·소설·수필 위주의 문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 문학 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 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 교실 등도 운영한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자랑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독서와 사색,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이 도서관의 또 다른 매력은 '문학둘레길'과의 연계다. 문학둘레길은 인사동, 만해당(한용운 가옥), 보안여관(시인부락), 이상의 집, 윤동주 하숙집 터, 세종대왕 생가 터, 정철 생가 터,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아크앤북 책과 라이프스타일 숍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입구에서부터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복합문화공간답게 다양한 장르의 도서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 및 잡화도 판매하고 있으며 카페와 음식점도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태극당'도 입점해 있어 출출할 때 간식을 즐기기에 좋다.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아크앤북에 방문했다면 '타센 아트북 스트리트'로 불리는 아지트형 책 터널은 꼭 보고 가야 한다. 독일의 예술서적 전문출판사인 타센의 도서 8000권 속에 자석을 넣어 천장을 덮은 특별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休 학림다방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 지식인, 문화예술인의 아지트다. 대학로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1956년에 문을 열었다. 빼겨대는 나무계단, 책장에 뽀뽀하게 꽂혀 있는 LP판과 목조 구조물

문화예술인의 아지트 '학림다방'
고즈넉한 여유 즐기기 '싸롱마고'
도심 속 힐링 한방 카페 '솔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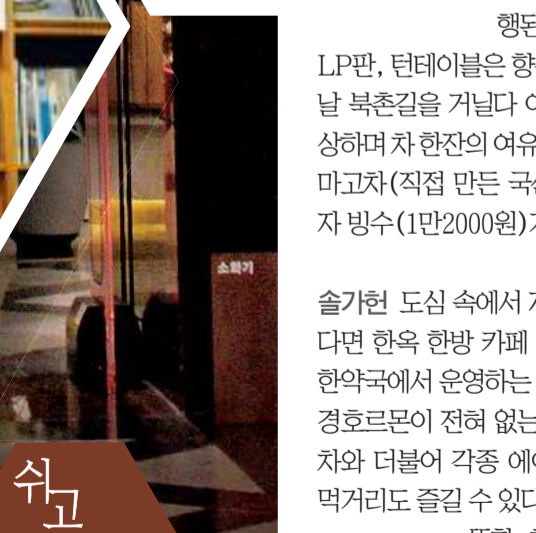
들이 정겹다. 한가롭게 음악도 듣고 이 공간을 즐기고 싶다면 평일에 방문하는 게 좋다. 로스터리카페 '학림커피'도 가까운 거리(도보 1분)에 위치해 있다.

싸롱마고 창덕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싸롱마고'다. 현재 은덕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예, 사군자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1층에 진열된 옛 CD, LP판, 턴테이블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쾌청한 날 북촌길을 거닐다 이곳에 들러 책과 음악을 감상하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대표메뉴로는 마고차(직접 만든 국산 차 6000~7500원), 북분자 빙수(1만2000원)가 있다.

솔가현 도심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한옥 한방 카페 '솔가현'에 들러보자. 진산한약국에서 운영하는 솔가현은 한옥 내외부를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는 원목으로 꾸몄다. 또 한방차와 더불어 각종 에이드, 해독 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솔가현이 가득한 곳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며 즐기는 족욕(20분에 1만 원)은 그야말로 신선놀음이다. 대표메뉴로는 진산한약국이 개발한 10여 가지의 한방차(다과 포함 1만 원)가 있다.

글·사진/정혜선 인턴기자 sunny@
자료제공 한국전통식품문화관·청운문화도서관

- 1 책과 라이프스타일 숍 결합 '아크앤북'
- 2 전통음식 체험 공간 '한국전통식품문화관'
- 3 시니어 전용 '청춘극장'
- 4 공공 헌책방 '서울책보고'
- 5 창덕궁 돌담길에 위치한 '싸롱마고'
- 6 한옥 한방 카페 '솔가현'



책 안 읽는 한국인... 월 5000원도 안 쓴다

출판저작권연구소, 1인당 월 도서구매비 4960원 가구당 여행·운동·오락비 지출 늘고 책값은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책 구매에 1인당 월평균 5000원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7일 공개한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도서구매비는 4960원이다. 이는 전년의 4942원보다 18원(0.4%) 증가한 수치다.

1인 이상 가구도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1인당 월평균 도서구매비는 2008년 6499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6년 4677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부터 2년 연속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매비(명목액 기준) 지출은 1만 2054원이다. 2017년(1만2157원)보다 0.8% 줄었다. 1인 가구도 집계에 넣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 도서구매비는 지난해 1만1850원으로 2017년의 1만1688원보다 1.4% 감소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1인당 월평균 도서구매비가 증가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매비가 감소한 것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구당 도서구매비는 줄었으나 가구 수 증가로 전체 도서구매비는 전년보다 소



뉴스시스

폭 증가했을 것이라 추정이다.

지난해 가구당 전체 오락·문화 부문 지출은 월평균 1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오락·문화비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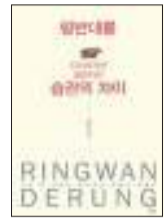
중국의 여행 등 단체여행비(19.1%), 운동 및 오락서비스(13.8%), 유료 콘텐츠 이용료(11.8%) 등은 증가했지만, 가구당으로만 보면 도서구매비는 줄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출판서점계가 정부, 저자, 도서관, 독서 운동계와 함께 독서 인구 주변을 확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는 일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관계자는 "2020년에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초과할 1인 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책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 판형, 면수, 무게 등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링반데롱
김은정 지음/이다복스/1만5000원

늘 제자리에 맴도는 사람에게 '링반데롱에 빠졌다'고 말한다. 링반데롱은 독일어로 '둥근 원'을 뜻하는 '링(Ring)'과 '걷는다'라는 '반데롱(Wanderung)'이 합쳐진 말이다.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나 폭설 등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어 버린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도는 현상을 가리킨다.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정작 잘못된 습관이 나를 묶어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제자리만 헤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코칭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사소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지 알려준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다운 나로 설 수 있다.



사과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
이호정 지음/라운북/1만6000원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수백만 '좋아요'를 받고, 예쁜 제품은 비싼 비용을 내고 사간다.

지금은 이미지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언어 장벽 없이 이 세상 모든 이와 소통한다.

저자는 컬러의 역할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은 감으로 컬러를 다루기 때문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집필 이유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 디자이너, 좀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마케터, 고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컬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컬러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얻고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김소희 기자 ksh@

대학생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유관순'

안중근·김구·윤봉길·안창호 順 재조명 할 인물에 '남자현 열사'

대학생들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꼽았다.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남자현 열사는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산문화재단과 교보생명이 공동 주최하는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이 신청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 중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은 결과, 4344명 가운데 1168명(26.8%)이 유관순 열사라고 답했다. 이어 안중근(18.8%), 김구(15.9%), 윤봉길(7.5%), 안창호(4.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점', '자신의 신념대로 당당하게 살아



유관순 열사

가는 자세', '두려움을 이긴 한 개인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증명할 점' 등을 들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 중 재조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6명(7.6%)의 대학생들이 남자현 열사를 꼽았다.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남자현 열사는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했다. 대학생들은 '영화화된 인물임에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덜 알려진 점' 등을 재조명 이유로 들었다.

김소희 기자 ksh@

'가정의 달' 서점가 휩쓴 아동 도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달, 5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다수 진입해 눈길을 끈다.

5월 1주 영풍문고 종합 베스트에는 아동 도서 시리즈 신간 3종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예스24 5월 1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네 계단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다.

게임 '좀비고등학교'의 동명 학습만화 '좀비고등학교 코믹스 12'가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좀비고등학교 코믹스 12'는 모바일 게임 '좀비고등학교'의 IP로 제작된 만화로, 학교에서 좀비를 피해 살아남는 게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당이 탐정의 추리 이야기가 담긴 책




영풍문고 종합베스트에
아동도서 신간 3종 진입

'추리 천재 영당이 탐정과 카레사건'은 영풍문고에서는 3위에 올랐다. 예스24에서는 전주에서 한 계단 올라 5위를 차지했다. 어린이를 위한 추리 동화인 '추리 천재 영당이 탐정과 카레 사건'은 영당을 꼭 닮은 얼굴 모양의 천재 탐정이 입에서 지독한 방귀를 끼어 범인을 잡는다는 설정으로 어린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설민석의 한국사 만화 시리즈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0'은 영풍문고에서는 4위, 예스24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톨립 사운드북 아기 동요 세상', '알사탕' 등 그림책도 베스트셀러에 자리했다.

김소희 기자 ksh@



▼ 화제의 신간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삼성문학상 수상 베스트셀러

“100만부 신화의 재탄생”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작이다. - 이청춘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끼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용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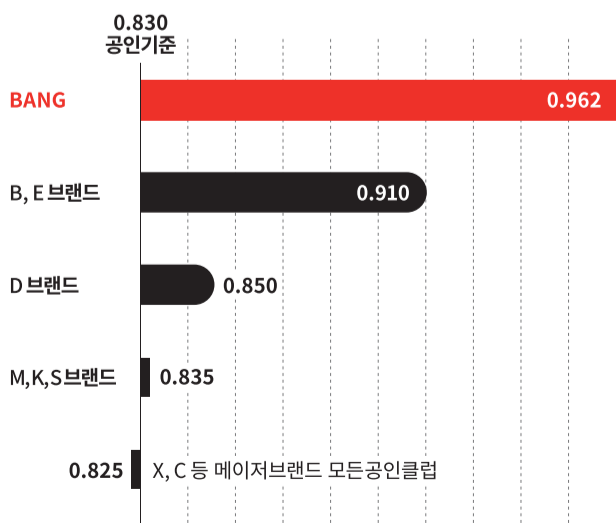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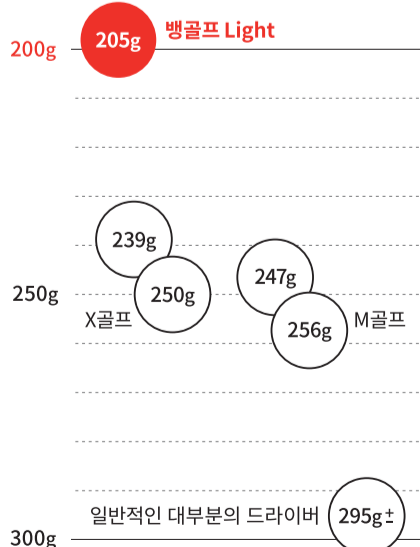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한국 경험 토대로 우즈베크에 건강보험 도입 논의”

‘공무원 수출’ 2호...이동욱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

우즈베크서 2년 전부터 공무원 교류 요청...올해 3월 부임
文 대통령 방문 계기로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협력 분주

“모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한국에 우호적이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우즈베키스탄 사회발전 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동욱(사진)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체감하는 현지 분위기다.

우즈베크는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한국에 공무원 교류를 요청했다. 한국형 보건 의료시스템을 이식받기 위해서였다. 우즈베크는 올해 2월 한국 복지부에서 역할을 마친 이 차관을 우즈베크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당초 이 차관의 역할은 자문역 정도였으나, 우즈베크는 이 차관이 우즈베크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직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랐다. 그래서인지 이 차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이 전 실장은 ‘공무원 수출’ 2호다. 앞서 2012년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됐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이 차관은 우즈베크 보건부에 공무원 축구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잠시 미뤄졌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현안이 쌓여 있어서다. 이 차관은 “최근엔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이



후에는 e-health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양국 의료기관 간 의료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 임명 후 한·우즈베크 간 보건

의료 협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크 방문을 계기로 지난달 18일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우즈베크 보건부 간 응급의료기관 보건 의료 지원 등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향후 이 차관은 우즈베크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보건으로 분야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의무·건강보험 도입,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우즈베크의 보건의료 개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 전 실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크에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한·우즈베크 양국 간 보건 의료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의 임기는 1년(갱신 가능)이지만, 당분간 우즈베크 공무원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당분간(한국에는) 못 갈 것 같다”며 웃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T ‘인프라융합혁신실’ 신설
실장에 이철규 서브마린 대표

KT는 네트워크부 문 직속으로 인프라 융합혁신실을 새롭게 만들고 초대 실장(전무)에 이철규 KT 서브마린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철규 실장은 1986년 KT로 입사해 네트워크품질담당, 네트워크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한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다.

인프라실은 선로, 장비, 건물 등 사업 분야별로 각각 관리하던 안전과 시설관리 영역을 통합해 모든 네트워크 영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김병근 기자 nova@

윤경구 前 티맥스 연구소장
파수닷컴, 개발본부장으로 영입

파수닷컴은 티맥스 연구소장 출신인 윤경구 전무를 파수 데이터 보안 제품들의 개발을 총괄하는 개발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본부장은 20여 년 동안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클라우드 연구소장을 지내며 웹서버, 미들웨어, WAS, BPM, EAI, ESB,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주요 솔루션을 설계하고 연구개발(R&D) 분야를 총괄했다.

김우람 기자 hur@

류현진, 애플랜타전 완봉승 후 방탄소년단 슈가와 인증샷



류현진이 애플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개인통산 두 번째 완봉승을 거둔 뒤 다저스타디움을 찾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만났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플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호투하며 완봉승을 거뒀다. LA 다저스는 9-0으로 승리했고, 류현진은 시즌 4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자신을 응원하고자 경기장을 방문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인증샷도 찍었다. 슈가를 알아본 류현진은 “대스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라며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이재영 기자 ljj0403@·사진 LA 다저스 트위터

용커 “영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입 안 한 것 후회”

EU 집행위원장 10월 임기 만료

장 클로드 용커(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에 EU가 개입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용커 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당시 회자되던 거짓말을 부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며 “그런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킨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지도자들에게 국민투표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개입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재임 중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



이다. 국민투표 결과, 탈퇴 찬성이 51.9%, 잔류가 48.1%의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용커는 앞서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 전 총리에 대해 “가장 강력한 현대의 파괴자들 중 한 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영국은 당초 올해 3월 29일에 EU를 탈퇴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하원에서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커 위원장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월 EU 수장에서 물러난다.

이슬기 기자 seulkee@

대한항공 사내봉사단, 네팔 보육원에 놀이기구 기증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네팔 치트완 지역의 어린이 보육원을 찾아 놀이기구를 기증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네팔 치트완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으로, 대부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우수하지만 전기, 가스 및 병원,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대한항공 봉사단원들은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변변한 놀이기구 없이 생활하고 있는 네팔 보육원을 찾아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등 놀이기구를 기증하고 모래놀이터를 조성했다. 아울러,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민들에게는 영양제와 해열제, 피부염 연고, 구충제 등 고온다습한 현지기후에 유용한 의약품들을 전달했다.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원들이 보육원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은 2014년부터 회사의 지원 아래 6년째 네팔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항공에는 현재 25개의 사내 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각 봉사단은 고아원, 장애인 시설,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건설, FT ‘아·태 혁신적 법률가賞’ 3개 부문 수상

SK건설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가 3일 주최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적인 법률가상(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 Awards 2019)’ 시상식에서 1개 부문을 수상하고, 2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SK건설은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모델 보유기업’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 수상했다. 또 ‘최고의 혁신적인 사내 계약조직’ 부문과 ‘혁신적인 전문지식 보유’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파이낸셜타임즈는 “SK건설은 프랑스, 일본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클레임 관리 계약을 체결해 클레임 문서작성, 전략수립, 분쟁해결 등 뛰어난 클레임 관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독점해 온 클레임 관리 영역에 뛰어들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현경 SK건설 계약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전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SK건설의 기업문화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SK건설의 혁신과 발맞춰 통합적 계약관리 수행을 통한 지속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이현경(왼쪽 세번째) SK건설 계약실장이 3일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음

▲김만식 씨 별세, 김영일·지수·덕수(여신금융협회장)·영선·두수 씨 부친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5

▲이건정 씨 별세, 방신례 씨 남편상, 이용욱·동욱·현숙·인숙(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경숙(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경재 씨 부친상, 강호훈(쥬벨월드 대표)·이도형(한국콘텐츠진흥원 부장) 씨 장인상 = 7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42-600-6666

▲정세진(전 아진교통 이사) 씨 별세, 정한석(삼성SDS 부장)·한중(연합뉴스감사·대명회계법인 부대표) 씨 부친상, 구제희(삼성전자 한국총괄 프로) 씨 장인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02-3410-6914

▲배경자 씨 별세, 권만복 씨 부인상, 권한진(더마스터의원 원장)·유미·수미 씨 모친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추모관 204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10-3424

▲이강호 씨 별세, 이왕상(NH투자증권 해외영업부장) 씨 형제상 = 8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32-290-3511

▲임두훈 씨 별세, 임종오(정기계 부장)·종근(대한화장품협회 부장)·종천(EMC FSS 부장)·종화(게이트 대표) 씨 부친상 = 7일, 대전역전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41-932-1414

▲김석전 씨 별세, 최춘매 씨 남편상, 김미희·미경·시중(SJB산업 대표)·미숙·호중(서림주택관리(주) 전무이사) 씨 부친상, 정동현(서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씨 장인상, 천인옥·원서영 씨 시부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기사판

한국, 2023년까지 유엔통계위원회
통계청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우리나라가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 다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선거에서 9년 만에 다시 위원국에 진입해 2016~2019년 임기를 채웠으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아모레퍼시픽재단, 학술지원사업 접수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공익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은 8일 ‘2019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여성과 문화’와 ‘개성상인’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응모자들은 주어진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세부 주제를 정해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샘, 한부모 자녀 ‘여자야구단’ 창단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광나루야구장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여자청소년야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다원문화복지회와 손잡고 창단한 여자청소년야구단 1기는 총 13명이 모집되었으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인사

◆KR투자증권 <신규 선임> △프로젝트 금융본부 프로젝트금융팀장 박승용

◆비로투자증권 <전무이사> 윤기정 △전무배정삼 △상무심명섭 △이사정일현

자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에 그랬던 것처럼,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기에 적응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기계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대체해 갈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는 부족하고,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 감소는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시차를 두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갈 것이다.

이번 칼럼은 돈보다 세상 이야기다. 밥 한 끼 얻어먹는 '한끼줍쇼'에 서울 여의도 아파트가 나왔고, 필자는 한 장면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았다. 여의도 아파트는 초창기 도시 개발 때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낡고 오래됐다. 개그맨 김수용이 보여준 그가 살던 옛날 아파트도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거실에 라디에이터가 있고, 부엌 옆에는 이름도 생소한 '식모방'이 있다. 지금의 가사도우미를 그때는 '식모'라고 불렀다. 1970·80년대에는 집에 식모방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골 처녀들은 서울로 올라와 식모살이를 했다. 노동력이 풍부했고, 인건비가 싸던 그 시절의 엄마, 누나, 언니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가능했던 시대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불안하고, 불안정했다. 지금의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한다. '식모'라는 직업은 없어지고, 계층 간의 상향 이동도 어려워졌다. 돈은 벌지만 계층 이동은 멈춰버린 사회이다. '헬조선'의 실체는 한국이 성장을 멈춰버린 데에 있다. 불안정한 1970·80년대에는 공부를 하면 검사, 의사가 되고 식모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 안정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고 계층 간의 질서가 안정되어버린 지금은 공부를 부모보다 열심히 해도 힘들고,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어도 가난하다. 한국이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기에 생긴 좌절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1970년대로 돌아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적응할 것인가? 사실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승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한 이만 살아남았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나서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이다. 창원에 기계공단이 생기고, 여천에 석유화학공단, 구미에 전자공단이 정부 정책에 힘입어 자리 잡았다. 일 자리가 늘어나자, 주변에 도시도 성장하고, 자영업도 커지고, 땅부자도 출현했다. 뭉뚱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노동을 싸게 활용해 생산성을 올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본주의는 투입 대비 이윤이 남아야 증식되는 구조이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은 결국 저임금의 노동자에 의존했던 것이다. 농경사회의 생산이 노동에 의해 결

정되었다면, 산업자본기의 생산은 자본이 노동을 포획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간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성장해 온 산업 자본은 새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자본이 만드는 것이고, 자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자본을 투입해도 그만큼 자본 생산성이 개선되기 힘들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공급 과잉과 경쟁 격화에 노출돼 있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린다고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0%대로 감소했고, 202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노동과 자본에 의존한 수확체감의 세계에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수확체증의 경제로 진화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 전진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이 수확체증 경제를 현실에 구현하고 있고,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이러한 기업들의 자본 생산성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 여전히 정책의 주안점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전통적 생산요소에 머물러 있다. 자본 증식을 좌약시하는 일종의 성장 염세주의가 만연하다. 청년들이 과거 세대를 부러워하며 선택한 현실이 '공시'라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9급 공무원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에 육박한다. 안정과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이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인 규제 완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선택지가 바뀌어야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에 그랬던 것처럼,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기에 적응해야 한다. 2000년 초반 IT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기술을 개발한 이가, 아니 기술을 활용한 이가 돈을 버는 세상이다.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한 이보다 그 서비스를 적용한 넷플릭스가 혁신의 주인공이 됐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기계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대체해 갈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는 부족하고,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 감소는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시차를 두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CEO 칼럼



민경선
자율대표이사

타이거 우즈에게 근성을 배우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600위권 밖으로 떨어져서 각종 부상을 안고 사는데? 이미 그의 골프 인생은 끝났어." "아무리 천재라도 그 운명을 다한 거지." 수많은 입방어를 잠재우기라도 하듯 타이거 우즈는 지난달 15일 세계 최고 권위인 마스터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하며 황제의 부활을 알렸다. 약물중독으로 차사고를 내고 치욕스러운 경찰서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스무 명이 넘는 여성과의 무분별한 불륜으로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그가 골프로 정정당당하게 최고의 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지만 보는 내내 한 번 비비지 않게 만든 역전의 드라마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표정 변화 없이 세 번의 빈스윙을 거르지 않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어느 때와는 달리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

가 방법을 저지르고, 파렴치한이라 불리던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우승을 기도했던 것 같다. 우즈를 따르는 갤러리들도 같은 감정이었는지 사마타 손뼉을 치고 환호하며, 그린 언저리에서는 땀그랑하며 흘겁에 공이 떨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려 환호했었다. 한국이라면 어떨을까. 아무리 골프를 잘 친다 한들 다시 뜨겁게 환호하며 응원해 줄 수 있었을까. 무엇이 대중으로 하여금 그토록 열광하게 하는지 우즈의 매력에 궁금해졌다. 두 살 때부터 '골프 신동'으로 불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우즈는 스물네의 나이에 프로에 데뷔했다. 데뷔 첫해 마스터즈 대회에서 2위와 무려 12타 차이인 18언더파로 놀라게 우승했다. 네이비 지식검색에 타이거 우즈를 검색해 수상 이력을 살펴보자니 스크롤이 한없이 내려간다. 과연 천재는 전제다. 그런 그가 2006년부터 몇 번의 슬럼프와 부상을 전전하며 각종 구설에 오르더니, 이혼으로 가정마저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반성이 있어서 다시금 오늘의 황제로 귀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불륜이 들끓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타이거 우즈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생 내내 지나치게 열심히 일했고, 내 주변의 모든 유혹을 받아들여 즐겨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과 명예 덕분에 모든 것은 주변에 있었다. 하지만 모두 틀린 생각이었다. 나는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이 우즈를 새로 태어나게 했고, 사람들은 2년여의 시련을 버티며 묵묵히 노력한 그를 용서하며 다시금 맞아준 모양이다. 반성과 새로 태어남. 그리고 용서와 아낌없는 응원. 미국, 그들만의 문화도 부럽고 우즈의 그 배경과 욕심 또한 가히 천재적이다. 우승을 결정짓고 나누던 어머니, 자식을 비롯한 10여 명과의 포옹을 지켜보는데 왜

그리 가슴 뭉클하던지. "골프채로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라"고 했던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우즈는 세간의 손가락질과 가족을 망가뜨린 원죄에 대해 솔직히 반성하고 골프채로 다시 말하는 데 성공했다. 묵묵히 실력으로 재기를 다짐했을 그의 독심에 박수를 보낸다. 우즈의 재기가 인간승리 이상의 가슴 뭉클함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천재임에도 노력하고, 부와 명예를 다 이루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일탈하였고, 일탈하였으나 솔직히 반성하고, 가정을 깨뜨렸지만 묵묵히 골프채로 대신 말하게 만드는 등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의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곡절 많은 세월에도 스포츠 하나에 열광하는 까닭 또한 우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곧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 돌아온 골프 황제는 필자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골프채 하나로 수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 그의 근성을 닮고 싶다.

☆ 프리드리히 실러 명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자기 자신이다."
독일 국민 시인. 괴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2대 거성으로 추앙받는다. 개성 해방 문학운동인 '슈투름 운트 드랑'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군도(群盜)'가극장에서 상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괴테와 함께 '크세니엔'이라는 시집을 내기도 한 그는 '메시나 신부', '빌헬름 텔' 등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졌다. 1759~1805.
☆ 고사성어 / 석과불식(碩果不食)
과실나무에 달린 가장 큰 과일을 따먹지 않고 남겨 두어 다시 종자로 쓰는 것. 자기 욕심을 버리고 복을 넘겨줌을 뜻하며, 자손이 복을 받도록 염려해 준다. 소인(小人)은 많고 군자(君子)는 겨우 몇 명만 남음을 비유하기도 한다. 주역(周易) 박괘(剝卦)에서 인용된 말.
☆ 시사상식 / 메칼프 법칙(Metcalf's Law)
네트워크에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모이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 네트워크 사용자를 획득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3COM의 설립자 밥 메칼프가 내놓은 이론. 그는 회원이 10명인 웹사이트에 1명이 더 들어오면 네트워크의 비용은 10에서 11로 10% 늘지만, 웹사이트의 가치는 100(10의 제곱)에서 121(11의 제곱)로 21% 증가한다고 보았다.
☆ 유머 / 사망신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주민센터에 첫 출근한 날. 첫 민원인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처음 대하는 민원인이라 너무 긴장해 이렇게 물었다. "분인이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다. "본인이 직접 외야 하나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한국의료(K의료)에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 의료 서비스 가격,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 수준 높은 의료진, 친절함의 의료서비스 등 K의료가 주목받는 이유다. 실제로 K의료를 경험한 외국 환자들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일로 꼽는다. 지난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2018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90.5점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K의료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함찬병원 등이 이들 지역에 위탁운영 또는 단독으로 진출

중이다. 정부도 이러한 국내 병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의료 클러스터 협력, e-헬스 등 K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쿠웨이트를 방문해 5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공공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K의료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극복 과제들이 존재한다. 선진 의료기기 도입의 어려움, 현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 등 국가

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가 간의 의료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료계의 견제와 무관심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한 병원들이 손실을 보다 고군분투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K의료가 현지에서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러브콜을 토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외 진출 병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현지화 노력이 필수이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촘촘한 외교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K의료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 국내 의료계가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라길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노은희 유통바이오부/selly215@

'K의료' 러브콜이 계속되려면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대표전화 (02)799-2600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샤오미(小米) 레이진(雷軍) 회장

이윤을 넘어 인심을 얻는 기업가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小米)는 2013년 7월 '홍미(紅米)'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을 799위안(元)에 출시하였다. 자신들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10만 대 한정판으로 판매하였다. 놀랍게도 이 신제품들은 단 90초 만에 매진되었다.

대단히 적은 소량의 신제품만을 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갖고 싶게 만드는 이른바 '헝거마케팅(hunger-marketing)' 전략이었다. 이는 중국 상업의 역사에서 재신(財神)으로 추앙 받는 백규(白圭)의 박리다매 방식의 계승 발전이기도 했다.

모든 기존 방식을 전복(顛覆)하다

세계인들은 중국 샤오미의 놀라운 성공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짜퉁'이 아니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 평가절하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샤오미는 단순히 '짜퉁'이 아니라, 우선 품질도 괜찮았다.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보통 사람들의 선입견에 비한다면 품질이 상상 외로 우수했다. 또한 기존의 판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만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유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샤오미를 이끄는 레이진(雷軍)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수한 기업은 이윤을 얻고, 위대한 기업은 인심을 얻는다." 샤오미는 이러한 '무이윤' 정책을 통해 대규모의 고객 집단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판매, 스마트폰 게임 등의 다양한 경로로 부가서비스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샤오미는 상이한 고객 집단을 겨냥해 상중하의 가격대를 설정하고 고급제품과 중저가 대중용 일반제품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판매했다. 동시에 철저한 온라인 예매 방식으로 재고 없는 영업 방식을 실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샤오미는 특히 고객의 경험과 체험을 대단히 중시했다. 고객들의 불만이나 요구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하여 일주일 내에 처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온라인 '논단' 등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비스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 모든 문제에 걸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졌다. 실제 샤오미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작되고 개선되며 단련되어졌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참여감'에 의해 샤오미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와 충성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모두 기존 방식을 '전복(顛覆)'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대세(大勢)를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레이진은 1969년 12월 후베이(湖北)성 셴타오(仙桃)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한(武漢)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수학한 공

대생으로 대학에 다니던 당시부터 이미 컴퓨터 천재로 명성이 자자했다. 당시 우한대학은 중국 대학 중 최초로 학점 조기 이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모든 학점을 단 2년 만에 조기 이수했다. 대학 재학 중에 동료들과 낸 '심화 DOS 프로그램'은 당시 개발자들의 필독서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진산(金山)에 들어가 탁월한 개발 능력을 발휘하면서 6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레이진은 2007년 갑자기 진산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시대의 큰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야말로 핵심이다. 그러나 진산은 마치 소금밭에서 식물을 심는 것과도 같았다. 왜 내가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서 연을 날리지 못하겠는가? 태풍이 부는 곳에서는 돼지도

룻씩 나누어 먹으며, 함께 꿈을 향한 전진을 개시하였다.

이듬해 8월에는 드디어 스마트폰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그러나 출발은 참담했다. 첫 두 달 동안 고작 이용자 100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그는 이 100명을 감격시키기 위해 고객 이름을 회사 컴퓨터 시작화면에 기록하고 회사 주소록에 추가했다. 레이진은 그렇게 오로지 제품과 고객에게 심혈을 기울였고, 고객과의 소통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샤오미 배터리는 무려 5500만 대 팔려나갔다. 10초마다 6대씩 팔린 셈이었다. 해외 판매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에서 샤오미는 부동산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샤오미의 신속한 부상은 그 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히 신화적 과정이다. 이미 2014년에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샤오미 CEO인 레이진을 만난 자리에서 "듣자하니 샤오미(小米)가 이미 대미(大米)로 변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사를 건넸을 정도였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레이진은 자기 시간의 80%를 '사람 찾는 일'에 쏟아왔다. 물론 '충만한 사람' 말이다. 그는 매일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을 찾는 일에 사용했다. 샤오미 군단에 처음 진입한 100명의 직원은 모두 레이진 본인이 면접을 통해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다.

샤오미는 일곱 명의 샤오미 창립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들은 아예 '직위'가 없다. 모두가 엔지니어로서 모든 직원이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 매주 한 시간 최상층 간부들의 정례회의 외에는 거의 회의가 없다.

탁월한 엔젤투자자로서도 유명한 레이진은 지금도 쉽 없이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한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의 투자도 실패하지 않았던 투자의 귀재로 통하고 있다. 그가 투자했던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해당 업종에서 1위를 달리거나 최소한 3위 안에 든다. 그의 투자에는 세계의 원칙이 있었다. 첫째, 잘 알고 있지 않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둘째 원칙은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도울 뿐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그의 투자에서 가장 큰 원칙이다. 그래서 그의 투자는 반드시 '친구'와 '친구의 친구'의 단계에만 국한된다. 그렇게 두 단계 이상의 관계는 절대로 뛰어넘지 않는다.

레이진의 사업은 이미 스마트폰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는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제 샤오미는 신속하게 생활소비 분야로 진군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당시 그가 잡아낸 시대의 대세(大勢)란 바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아이폰(iPhone)의 출현 이후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여 온라인의 주류를 점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그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것은 바로 뛰어난 품질과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동시에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이었다. 이제 사업 방향도 정해졌고, 자금도 풍부한 편이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그는 백방으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는 먼저 당시 구글 중국엔지니어링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린빈(林斌)을 만나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며 자신과 함께하기를 권유했다. 린빈은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하고 곧이어 구글을 사직, 레이진이 이끄는 '해적선'에 처음 합류한 인물이 되었다. 레이진은 이어 저우광핑(周光平) 전 모토로라 베이징 R&D센터 고급총감 등 뛰어난 실력을 가진 총 6명의 인재들을 동참시켰다. 이렇게 모두 일곱 명이 함께 '샤오미 하이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레이진의 나이 40이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진산 시절부터 같이 근무했었고 이제 창업 동지가 된 리완창(黎萬強)의 부친이 좁쌀죽을 끓여 회사에 보냈다. 이렇게 '샤오미(小米)', '좁쌀'의 창업 동지 일곱 명은 좁쌀죽 한 그

사설 헛돈 쓴 일자리 사업, 계속 땀질만 할건가

정부가 지난해 19조200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헛돈으로 줄줄 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해 성과가 크게 저조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나온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3조1961억 원이 투입돼 81만400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중 노인이 69%(56만 명)를 차지했다. 취업자 통계에서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가 계속 줄고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만 급증한 것이 그 결과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들의 용돈벌이에 그친 것이다. 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민간부문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정부가 만든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유사·중복 사업도 즐비하다. 중앙 정부 일자리 사업만 20개의 모든 부처와 기관에 걸쳐 180여 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또한 4000개가 넘는 정도로 중구난방이다. 이름만 달리한 채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지원되는 사업은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만큼 난립한 상태다. 그런데도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 실업률 3.8%로 최악의 수준이었던

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최근 25.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도 작년보다 3조7000억 원 늘어난 22조900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 그동안 성과가 부실한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비슷하거나 겹치는 것은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를 보아 존속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그러나 또다시 땀질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성과에 대한 단순한 양적 평가로 사업의 숫자만 줄이고 예산을 가감하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제대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라리 그 돈을 실업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혈세인 재정으로 아무리 공공 일자리를 늘려봤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결국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만 들어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벽부터 허무는 일이다.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정부는 지름길을 돌아 자꾸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

알쏭달쏭 춘추필법(春秋筆法) - 포폄(褒貶)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참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강제로 이주당해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고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에 모시고 귀국했다. 화물칸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모시고 돌아오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진즉에 이런 세상이 되었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곤궁한 생활에 허덕이는데 독립유공자를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친일파 경찰은 오히려 호의호식하던 세상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세상이었다. 광복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 땅에 묻힌 독립유공자를 방치해 두었던 지난 세월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세월이었다. 이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누워 돌아온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보훈이 어떤 것인지, 왜 보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탕으로 편찬하여 제자들 교육에 사용한 역사책이 있다. '춘추(春秋)'라는 책이다. '봄 춘(春)'과 '가을 추(秋)'를 쓰는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두 계절을 들어 흐르는 세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따라서 원래 뜻은 '세월'이었고 차츰 '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역사'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공자가 춘추를 편찬한 이유는 포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포폄은 '褒貶'이라고 쓰며 '기릴 포', '까야 내릴 폄'이라고 혼동한다. '褒'는 기려 '포상(褒賞)한다'는 의미이고, '貶'은 ' 폄하(貶下)'의 뜻인 것이다. 춘추는 포폄을 정확히 한 기록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처럼 포폄을 정확히 가려 글을 쓰는 법을 '춘추필법(筆法)'이라고 한다. 역사는 인물과 사실에 대해 포상과 폄하를 정확히 해야 한다. 역사가 포폄만 정확히 하여 정의가 상을 받고 불의가 벌을 받게 한다면 세상은 바로 서게 된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유해송환'이 정확한 포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SAMSUNG



시스템에어컨의 선택 기준도 '무풍'

우리 가족에게 무풍은 곧 건강이니까

삼성만의 무풍냉방으로
우리집 어디서나
직바람 없이 시원하게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자세한 제품 정보는 <https://www.samsung.com/sec/business/> 에서 만나보세요

■ 무풍냉방 바람없이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 공기청정 PM1.0필터 시스템으로 4계절 내내 더욱 깨끗하게 ■ 균일냉방 냉기를 더 멀리 더 빨리 전달해 넓은 공간도 빈틈없이 ■ 절전냉방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무풍냉방으로 전력 사용 걱정 없이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 공기청정은 옵션 사항입니다